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 합 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2

루게:23

<http://www.lzchongsong.com>





천연향료를 위주로 하여 만든 이 향수는 향기롭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 1 ---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 4 ---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 7 ---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 빛나게 초과완수 화성지구 4 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 10---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 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 14---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진행
- 16--- 지방혁명의 전면적인 확대고조를 향한 새년도 투쟁의 기세 찬 발화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총련합회소식

- 18---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삼가 드립니다
- 20---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 즈음하여 삼가 드립니다
- 2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4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 27---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 축기를 보내였다
-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들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 28---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도착
- 28--- 청년협회 2026년 신년사업계획과 방안토의
- 28--- 료녕지구협회 일군들 협회모임진행
- 29---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음력설맞으며 공민들 위문
- 3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탄생 84돐에 즈음하여 길림지구협회와 할빈지구협회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 32---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조국소식

- 33--- 각지에서 설명절을 즐겁게 맞이
- 34--- 봉산군, 시중군, 신흥군, 통천군에서 새년도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사업에 일제히 착수
- 35---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5 0 0여개 농장의 1 8 6 0여개 마을에 1 1 만 3 천여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새로 건설
- 37--- 동해명승에 펼쳐진 지방발전의 새 경관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진행
- 38--- 농기계연구소 준공식 진행

동포소식

39--- [무형문화유산 순방] 조선족장고춤으로 중화민족 화합의 선률 연출

중국소식

42--- 봄날의 신나는 선률! CCTV 2026년 춘완 상서로운 봄을 노래
45--- 2월부터 이런 새 규정 시행!

조종왕래

47---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2026년 설명절연회 마련
47--- 2026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친선모임 진행
48--- 冯春台公使赴黄海北道沙里院市走访慰问华侨并开展领事业务异地办公
49---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 중국에서 진행
49--- 李春日 | 2026朝鲜见闻 (一) : 火爆朝鲜的电视连续剧

국제소식

51---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서 자본주의의 운명을 본다
52--- 바다물을 연료로 리용하기 위한 움직임
52--- 로씨야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려는 서방의 책동을 강력히 배격

상식

53--- 성 총
57--- 암과 음식은 밀접한 관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6가지 음식
58--- 우리조국의 자랑 《백금산》
60--- 우리 나라의 비물질문화유산들 옛달이기
61--- 몽골
62--- 단어발음의 일반적규칙

련재소설

64--- 장편소설 립 꺾 정

앞표지: 2. 16경축 얼음조각축전 2026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 관한 보도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영광스러운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룬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가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속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5,000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방청자 2,000명이 대회실황을 시청하였다.

2월 19일 9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등단하시였다.

전체 대표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결출한 령도실력, 무비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당과 인민에게 후세토록 길이 빛날 존엄과 명예를 안겨주시는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시며 가장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대회가 개막되였다.

전체 대표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고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위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을 포함한 39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였다. 당 제 9 차대회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 둘째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 셋째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의사업의 첫 공정으로 총결기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청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력사적인 제 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어있다.

1. 총결기간 이룩한 성과
2.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3. 대외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4. 당건설과 당사업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첫째 체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 8기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과 그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총결기간 이룩된 제일 중요한 성과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것이다.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방의 방대한 사업들이 전개되어 나라의 알곡생산구조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빈약했던 농업생산력이 한층 개선되었으며 세기적인 락후가 남아있던 전국의 농촌마을들이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흐름을 열어놓았다.

총결기간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전국의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이 개시된것이다. 총결기간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국가경제전반을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의 복리와 관련된 사회주의적시책들을 확대실시한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으며 이것은 지나온 30여년간 경제분야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뚜렷하고 의의있는 성과로서 앞으로의 경제발전전망을 확실하게 락관할수 있는 중대한 진일보로 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둘째 체계에서 전면적발전기에 견지해야 할 중요요구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의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기간공업부문의 생산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전반의 장성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것을 중요과업으로 상징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투쟁목표들을 밝혔다.

보고는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부문에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둘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우리당 특유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데서 의의있는 문제들

이 심의되고 조선로동당규약에 명문화할데 대한 결정이 의결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규약에 따라 제 8기 당중앙지도기관이 자기 임기를 성과적으로 마치게 됨을 선포하고 제 9기 당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하였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당대회 대표자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대변하여 김정은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모시였다. 대회는 당규약상요구에 따른 해당 추천 및 선거절차를 거쳐 당의 혁명사상과 강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고결한 당적량심과 선봉적역할로써 혁명위업의 전진을 힘있게 견인해나갈수 있는 당의 핵심들로 138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111명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선거하였다.

대표자들은 전당의 총의를 대변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당규약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9기 제 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성동지, 조용원동지, 김재룡동지, 리일환동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

과 도당책임비서들을 임명하였다. 인민군대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임명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과 해당 결정내용들이 본 대회에 보고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정확한 집행대책을 수립하여 대회결정서에 반영하기 위한 각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정치국회의가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정치국은 수정보충된 결정서초안을 확정하고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국은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서초안을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서로 채택하였다.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초안과 당규약해설집초안을 심의하고 완성하였으며 전당에 내려보내기로 가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심의된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이 대회에 보고되었다. 결정서초안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변혁단계에 진입하는 시대적요구에 부합되게 세워진 경제, 국방, 문화, 국가사회관리 등 제반 분야의 보다 혁신적인 투쟁목표와 과업들이 반영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한마디로 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기세와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대회가 제시한 로선과 정책, 결정들이 반드시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인터나쇼날》이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기념 열병식이 2월 25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열병식에는 명예기병종대와 공화국무력의 각 군종, 병종, 전문병종대를 비롯한 50 개의 도보종대들, 열병비행종대들이 참가하였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 관현악단이 연주석에 자리잡았다. 광장상공에서는 미더운 항공륙전병들이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열병식의 서막을 장식하며 국방성 중앙군악단과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악대, 사회안전성 녀성취주악단으로 이루어진 종합군악대가 군종별특성과 멋을 살리고 강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저력있고 기백있는 곡조와 경쾌한 틀동으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위풍이 빛발치는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들의 입장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군종,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열병광장 주석단에 오르시자 또 다시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종대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도당책임비서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재일본조선인총합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총합단 단장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 참가자들과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래동안 사업한 로간부들이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 기념행사 특별손님으로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돌격대원들, 시안의 일군, 근로자들, 혁명학원 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제양식이 진행되었다. 국기호위대가 조선인민군 각급 편합부대 군기들의 경의를 받으며 국기를 응위하여 제양대로 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리는 속에 성스러운 국기가 제양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를 기념하여 21 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당 제 8 차대회에서 당 제 9 차대회에로 질풍쳐온 5년간의 행로에 대한 값높은 회억과 걸어갈 새 려정에 대한 자신심이 장쾌한 포성이 되어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강철의 부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이 헤쳐가는 개척로를 밟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용감히 진군할것이며 원대한 목표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것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튼성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을 위하여 당 제 9 차대회가 열어준 새 시대의 투쟁에 힘차게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김정은**동지께 국방상이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기념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었다. 공화국무력 열병종대들의 장엄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충성의 진군길을 혁혁한 군공과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갈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안고 명예기병종대가 열병행진의 선두에서 나

갔다. 우리 혁명무력에 강군의 생명을 주고 눈부신 영광과 필승의 힘을 주는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제일선에서 결사호위해나가는 친위부대종대들, 조국의 남부국경전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군단종대들이 련이어 진군화풍을 펼치었다.

조국수호의 항로에 영원한 삶의 좌표를 정하고 국가방위의 최전방을 지켜선 해군종대, 공군종대가 군종사령관들의 인솔하에 기세드높이 광장을 행진해갔다.

공화국의 영예로운 근위병, 정예의 침병대오인 특수작전군종대에 이어 해외작전부대종대, 해외공병련대종대들이 승리자의 자부심높이 위대한 령장의 사열을 받으며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충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군대특유의 정치사상적우세와 강대성을 세계앞에 과시하며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떨친 정예부대들에 뜨거운 전투적경례를 보내시었다. 열병대원들은 주체의 군건설위업실현에서 천추만대의 의의를 가지는 거창한 기적들을 안아오시고 강군의 개념과 승전의 법칙을 시대와 력사우에 려력히 새겨주신 **김정은**장군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합성을 터치었다.

그 명성만으로도 적들이 감히 범접할 엄두를 못내는 강군중의 강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병대오의 무적의 기개가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화력습격사단종대들, 정찰정보총국종대와 저격수종대, 산악보병종대, 통신병종대를 비롯한 전문병, 근무병종대들에도 용솟음쳤다.

적후산악활동부대종대, 해상저격병부대종대, 항공륙전병부대종대, 상륙돌격부대종대들과 주요병참임무를 수행하는 수송작전부대종대가 열병주로를 확보해갔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 철벽의 진을 친 강력한 민간무력인 로농

적위군중대에 이어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의 장성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주체혁명의 기둥감들로 억세계 준비해가는 혁명학원중대가 활기찬 보무로 도보중대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수도의 밤하늘에서는 열병비행이 진행되었다. 열병식의 열광을 고조시키며 특색있는 공연무대가 광장에 펼쳐졌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내 조국을 세계를 굽어보는 존엄과 힘을 지닌 강대무비한 나라로, 우리 인민을 견결한 개척정신과 열렬한 애국심, 강용한 기상을 지닌 영웅인민으로 키워준 우리 당의 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조선인민이 어떻게 천하제일강국의 미래를 당겨오고 번영

의 모든 꿈을 이루어내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줄 강렬한 의지와 불같은 열망을 담은 노래들에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동지를 우리러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광장을 진감하며 2월의 밤하늘에 끝없이 울려 퍼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당 제9차대회기념 열병식은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최정예혁명무력을 전위에 내세우고 광휘로운 미래를 신심드높이 개척해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정치군사축전으로 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끝)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 빛나게 초과완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에 역사적인 당 제 8차대회의 최종대과업으로 강력히 실행되어온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빛나게 계속되는 특기할 사변적성과가 이룩되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눈부신 발전상을 증견하며 송신, 송화지구와 화성지구에만 하여도 선진문명이 응축된 근 6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웅건화려한 인민의 새 리상거리들을 펼치고 웅근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행정구역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평양은 불과 5년기간에 사회주의 조선의 수도답게 자기의 면모를 비약적으로 일신하였다.

수도건설 5개년계획이 초과완수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존엄높은 당대회의 이름으로 인민과 한 언약이 드림없이 리행되

였으며 거창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당 제 9기기간에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국적판도에서의 건설사업을 힘있게 선도해나갈수 있는 교과서적인 경험, 주체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창조되었다.

기념비적인 수도건설 5개년계획을 계속 짓는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우리 국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전성기를 즐기차게 펼쳐나가는 위대한 창조의 거장, 탁월한

혁명의 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례포를 끊으시었다.

순간 새로운 평양변영기에 특기할 경사가 새겨지는 준공식장에 축포와 꽃보라들이 터쳐오르고 무수한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수도의 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사는것을 국력중의 제일국력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에 인민의 부림없는 삶과 밝은 웃음이 만발하는 만복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원수님께 참가자들은 최대의 경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근로자들을 만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에 겨워 삼가 인사를 올리는 그들에게 앞으로 훌륭한 집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새살림을 펴게 될 모든 가정들에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나기를 기원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로력혁신자들을 만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동무들과 같은 당정책의 절대적인 관철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결심한 중대한 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될 수 있었다고, 당중앙은 앞으로도 수도건설자들의 혁명적인 창조분때, 투쟁기질을 믿고 더욱 거창한 건설전역을 펼치게 될것

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대건설전구에서도 수도건설자의 명예와 기백을 힘있게 떨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전면적부흥의 개척기를 상징하는 제일전구로 중시하시며 방대한 공사의 전기간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고 기적창조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수도건설자들은 감격의 환호를 올리었다.

준공을 경축하는 공연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화성지구의 새 거리를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화성지구가 이처럼 아름다운것은 선진문명을 체현한 대건축군의 웅자도 그러하지만 그속에 다름아닌 인민의 진정한 행복과 밝은 모습이 비껴있기때문이라고, 오늘은 수도평양의 유구한 력사에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희한한 새 거리를 돌아보았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성과적결속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라는 철리를 만방에 실증하고 당 제9차대회가 펼칠 사회주의 전면적부흥성의 새로운 활로를 따라 우리 수도, 우리 국가는 더욱 눈부시게 번영할것임을 확신시켜준 미증유의 건설기적으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끝)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전국의 격동적인 변혁으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눈부신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의지와 탁월한 령도력은 이 땅의 한해한해를 신화적인 전변의 새 전기로 아로새기며 인민의 재부로 영원할 룡성과 변영의 실제들을 즐기치게 떠올리고있다.

천수백동의 각이한 류형의 현대적인 온실 호동들과 남새과학연구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기지들과 특색있는 원림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김정은**시대의 위대한 변천사를 증견하는 또 하나의 긍지높은 기념비적창조물이며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충성의 선물이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월 1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지금 우리모두는 스스로도 놀랄만큼이나 대단한 변혁을 마주보고있다.

여기에 무슨 요란한 말과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백마디, 천마디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표현할길도 없는 현실을 목견고있다. 대대로 물란리를 숙명처럼 여기던 이곳에 주민들이 천년홍수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방벽의 보호속에 흥겨운 로동으로 가꾸어갈 새 삶의 터전이 펼쳐진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자기의 청춘시절처럼 아름답고 자기의 명성처럼 긍지높은 새 전변을 자랑스럽게 이루어놓았다.

보람찬 대자연개조투쟁에 걸기한 그날로부터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은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에 청춘의 슬기와 열정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미래에 대한 확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물었으며 그우에 세세년년 복락을 누려갈 인민의 재부를 쌓아올렸다.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불굴의 용맹과 열혈의 기개로써 고귀한 투쟁기를 겪어온 젊은 혁명가들의 값높은 투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기념비적창조물앞에 설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은 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의 성과로써 우리 혁명의 가장 강위력한 정예대오, 전위부대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자격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드넓은 섬지구의 한치한치에 너무도 진하게 고여진 열혈의 젊음과 뜨거운 정성은 고귀한 애국의 자욱으로 길이 남을것이며 이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력사에 떳떳이 찍여질것이다.

뜻깊은 자리에서 거창한 건설투쟁의 주력이 되어 영웅적인 위훈으로 당과 혁명에 충성하고 시대의 거세찬 전진을 앙양시킨 미더운 장병들과 청년건설자들의 애국충심에 경의를 드리며 조국과 인민의 축복을 삼가 전한다.

오늘과 래일의 당당한 건설자, 용감한 개척자들의 애국의 보무와 더불어 조국의 대지는 더 풍요롭고 아름다와질것이며 우리의 리상과 결심은 반드시 즐기찬 전진과 승리로 빛날것이다.

진심으로 다시한번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조선청년의 젊음으로 영원히 푸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변혁과 룡성의 시대를 위하여 올해에도 더욱 용기백배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지역주민들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준공을 다시한번 축하한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슬하의 천만자식모두를 사랑의 한뼘에 안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 친근한 아버이를 걱정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격정으로 설레이는 준공식장에 축포란들이 날아올라 2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충성의 마음을 담아 군인건설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을 찾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고마움과 변함없는 계승의 의지를 담아 청년돌격대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인민, 혁명의 부름에 혁명적진출로써, 용감하고 열정적인 청년특유의 배짱과 기세로써 화답하며 조국의 서북변에 거창한 변혁의 영웅전기를 아로새기고 어머니당대회에 불멸할 존엄과 영광을 선물한 청년전위들에게 따스이 손저어주시며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준공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과 함께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조에서는 물고기들이 육실대고 띄움식재배들에서는 부루, 영양배추가 푸르싱싱 자라는 호뜻한 광경과 도마도, 고추, 오이를 비롯한 갖가지 농작물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진 남새바다를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기본은 종자문제이라고, 이곳에서는 각이한 남새품종의 종자육종과 설비현대화를 항구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지금 지방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중요한 변화과정을 경과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은 당중앙위원회 제 8기기간에 진행한 가장 방대한 사업들 중의 하나이며 높은 목표와 리상을 안고 전국의 획기적인 변혁을 위하여 분투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

상을 직관해주는 귀중한 부흥의 재부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며 기념비를 제막하시였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준공은 우리 위업, 우리 투쟁의 필승불패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자력의 기치높이 지방의 거창한 변천을 앞당기며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돛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고 전군의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국방성은 김정은동지께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담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주요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각급 대

련합부대, 련합부대들의 명예의 상징인 승리의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공화국무력을 영원히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의 전위에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대해같은 믿음과 정으로 총만된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전체 장병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국방성중앙군악단의 레식이 진행되였다.

전군을 새로운 승리에로 부르는 진군나팔소리와도 같은 전투적기백으로 총만된 혁명군가에 맞추어 펼쳐지는 군악대원들의 변화무쌍한 룰동대형과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의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는 건군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을 기념하여 국방성 본부 장령, 군관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부국강병대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초에서 우리 군대가 혁혁한 승전과 불멸의 공훈을 세우도록 뜨거운 격려의 손길로 자기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최고사령관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경축 국방성 지휘성원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건군절기념행사에 초청된 제대장령들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령도사와 언제나 함께 해온 장구한 건군사의 갈피 갈피에는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무

한한 희생성과 불굴의 기개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제대장령들의 고귀한 헌신의 자취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군력강화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의 국방성에 대한 축하방문은 국가주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전위적역할을 변함없이 과시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분발력을 백배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끝)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진행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본보기로 일떠선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이 2월 2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삼광축산농장조업을 기념하여 력사적인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는 새로 조업하는 삼광축산농장에서 선진성과 현대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또 하나의 독특한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가 리상하는 변혁의 높이, 개변의 정도를 명확히 새겨주는 새로운 기준이며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농촌건설에서 찾은 교훈에 비추어 우리 농촌, 우리 축산의 금후 발전방향을 그어줄 새 출발점, 혁신적인 기준을 개척하기 위하여 시작한 삼광축산농장건설의 목적과 그 중대

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전망을 바로 여기 삼광리가 명확히 제시하고있으며 우리는 삼광축산농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확대하여 농촌발전을 새로운 질적변혁단계에로 이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발전정책실행과 나라의 축산업을 세계적수준의 현대축산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당 농촌혁명강령의 확대실행과 새시대 축산업발전의 뚜렷한 방략을 밝힌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조업레프를 끊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하게 변모된 고장에서 복된 삶을 누

리게 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과 함께 삼광축산농장 제 1분장과 시설모재배장, 젖제품생산장 등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량한 품종의 젖소들과 염소들을 사육하는 호뜻한 모습을 보시며 역시 축산에서도 기본은 종자이라고, 국가적으로 우량한 품종들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세우고 원종보존사업을 과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젖소와 염소, 양 등에 대한 개체별관리체계를 지능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선진적인 축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 식의 축산생산체계, 정보화체계를 부단히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충분한 사료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과 함께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를 축산업발전의 5대고리로 내세운데 맞게 농장에서는 기술관리와 설비관리, 사양관리, 사료관리를 최적화하고 선진화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앞으로 계속 우리당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한 생산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축산이자 축산물 증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는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과학기술력강화를 선결과업으로 틀어쥐고 축산업발전의 새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젖제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화도지구에는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적실체가 일떠서고 삼광지구에는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전형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식의 전통적인 발전방식, 발전법칙이라고, 이를 농촌건설과 지방건설에 유기적으로 잘 구현해나갈 때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정책실행에서 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혁명위업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 자신심과 분발력을 더욱 백배하면서 농촌 및 지방건설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의 집중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투자자와 지원을 보장하여 당의 농촌건설정책과 지방발전정책이 우리 국가건설사에 긍지높은 페이지를 새기는 력사적인 총화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삼광축산농장의 조업은 전국의 모든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면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용지와 실천집행력을 뚜렷이 증시하고 나라의 축산업을 선진적인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다. (끝)



지방혁명의 전면적인 확대고조를 향한 새년도 투쟁의 기세찬 발화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지방발전정책의 진리성과 눈부신 전도에 대한 전인민적인 락관과 신심을 비상히 격양시켜주며 새년도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의 시발로 되는 성대한 착공식이 1월 29일 은률군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 각급 제 124 련대 지휘관들과 모범적인 병사들, 황해남도과 은률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부터 우리는 지방변혁을 향해 가는 또 한해의 거창한 투

쟁의 출발선에 나섰다고 하시면서 지방발전정책실행 3년째인 올해에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하여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게 될것이라고, 이같은 사실은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련속적으로 개변향상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의 실증으로 되는 동시에 확대심화되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줄기찬 기세와 년년이 장성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년간에 걸친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실행과정에 경제토대구축과 지방공업의 경쟁력, 지방에 대한 인식령역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은 지방발전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며 년차별계획들을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철저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의 전위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시고 의의깊은 착공의 계기들마다 집단적위훈에 부르짖는 열렬한 호소로 무비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신임을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세운 목적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위업수행의 전위대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과, 지방건설에 동원된 부대, 구분대 지휘관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군인건설자들의 정신적성장에 특별히 힘을 들여 모두를 당의 혁명사상의 견결한 신봉자, 옹호자, 관철자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애국자들로 육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전위대, 혁명의 수호자,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지켜 국가의 번영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한 창조투쟁에서 조선인민군의 기질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며 더욱 용감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우리의 리상과 신념, 억세게 다지고 키워온 투쟁기세와 창조력을 문명부강한 국가건설목표에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위대한 당중앙의 애국의 호소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화답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다지는 조선인민군 각급 제 124련대 관병들의 맹세문이 랑독되었다.

맹세문에서는 우리 국가초유의 일대 전변기를 개척해나가는 성스러운 창조투쟁

깊이 새겨안고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해에 새로운 변혁시대 문명과 부흥의 실체들을 전국도처에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혁명강군의 명함을 변함없이 빛내어나갈 엄숙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지도간부들과 함께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발과단추를 누르시자 세월을 주름잡는 불굴의 투쟁속에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부흥하려는 자력의 기상이 장쾌한 폭음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각급 제 124련대 지휘관들과 모범적인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변혁의 개척자,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고귀한 명함을 힘있게 떨쳐갈 일심충성의 맹세를 담아 《김정은》, 《결사옹위》의 합성을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은 부단한 발전과 비약을 지향하는 새시대의 기세찬 투쟁정신, 원대한 리상을 향해 가속화되는 우리 조국의 창조속도와 더불어 또다시 가슴벅차게 성취될 새로운 거족의 변화와 즐기찬 성공을 예고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끝)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조선속도, 조선신화를 창조해나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84돛을 최대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2월명절의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주체조선의 존위가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올라 빛을 뿌리고 조국땅 방방곡곡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르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을 목견하면서 우리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시대와 혁명앞에 만고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피어린 항일대전과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을 체험하시며 애국의 뜻과 의지,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굳히시였으며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실 용지를 안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으며 세상에 처음보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여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동란에도 끄떡없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쫓피우시기 위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끊임없이 올리시며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려정속에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하는 혁명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 내조국땅에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국건설의 만년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습니다.

백두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력한 총대우에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을 수놓으시며 인민군대를 당과 인민의 군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천하무적의 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였으며 무비의 담력과 령활한 지략으로 적대세력들과의 전면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시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진정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

스러운 애국업적은 보다 휘황찬란할 조국의 래일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주체조선을 인민의 리상과 꿈이 실현된 사회주의락원으로, 세계가 우리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위민헌신, 멸사복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의 리상실현을 당과 국가의 최고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건국이래 처음보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세계가 놀라는 기적적인 승리들을 안아오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 만족과 끝을 모르시고 열화의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삼지연시가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되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의주온실종합농장과 삼광축산농장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과 문명을 위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거창한 창조대전속에 착공이자 준공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탄생하고 전국의 수십개 시, 군들에 현대적이며 다기능화된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들이 건설되어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생활의 희열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발전하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는 세인의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수호를 제일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강인담대한 배짱으로 조국의 군력을 세계 최강으로 다져주시여 내조국에 영원한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사생결단의 화선길우에 우리 조국은 자위적국가방위력강화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최첨단화된 절대병기들을 다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당의 령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불굴의 전투정신과 실전능력을 겸비한 무적의 강병대오, 국가방위와 전면적국가부흥의 전위대오, 정의와 평화의 대표자로 위용떨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고있습니다.

참으로 겹쌓이는 사상초유의 시련과 극난속에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령도로 세인이 경탄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은 천만년 무궁창창할 조선의 미래를 확신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국땅에 살고있는 우리들을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한식술로 언제나 마음가까이에 두시고 육친의 사랑과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0돛과 조국해방 80돛을 비롯한 조국의 뜻깊은 명절때마다 우리들을 조국에 불러 경축행사들에도 참가시켜주시고 훌륭히 꾸려진 인민의 문화휴양지들에서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즐거운 휴식의 나날도 보내도록 배려하여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은 저희들의 충성과 애국의지를 백배해주는 무한대한 자양분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기원하며 애국사업에 성심을 다해가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낸다고 하시며 모두가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9차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경축연설을 접하면서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애국의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애국조직으로, 일군들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굳게 뭉친 일심의 대오로, 조중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력있는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자나깨나 뵈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

평양을 우러르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 재중동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어머니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2026년 2월 16일

중국 심양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삼가 드립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의 존위와 국력이 만방에 떨쳐지고 조국청사에 가장 빛나는 전면적통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뜻깊게 기념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2월의 당대회장으로 끝없이 달려가고있습니다.

세계최장의 집권사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력사에 아홉번째로 열리는 당대회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당의 향도력과 존엄을 끝없이 빛내이시는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위대한 개척기로 승화시켜온 지난 5년간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거세찬 전진동력을 증대시키는데서 획기적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영광의 대회입니다. 뜻깊은 당 제8차대회이후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지난 5년간의 자랑찬 령정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특기할 국력강화, 국위선양의 새시대가 펼쳐져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긍지높은 행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 8기기간에 제시하신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들은 가장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영구불멸의 대강이며 당 제 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줄기차게 인도하여 각 분야에서 미증유의 기적이 이룩되게 한 근본원천이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로쇠를 모르는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해 새시대 당간부양성의 원종장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훌륭히 일떠서 빛을 뿌리고 중요당회의들의 정기적인 소집으로 전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 국가부흥의 전면적발전기를 위한 중대로선과 결정들이 련이어 책정되어 거창하고도 거폭적인 변혁들을 확신성있게 담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이 인민을 위하여 굷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군당이 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건설사상과 숭고한 리념은 인류정치사에, 고금동서에 찾아볼수 없는 인민중시, 인민사랑, 인민사수의 전설들을 수없이 아로새기었습니다.

인민의 리상실현을 당의 숙원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 사회주의변화가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삼지연시가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되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온포근로자휴양소, 삼광축산농장과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과 문명의 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났습니다.

진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의하여 지방변혁의 세기적대업이 조선로동당의 숙원사업으로 적극화되고 해마다 20개 시, 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과 현대적인 병원시설, 종합봉사소들이 수폴처럼 일떠서고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수호를 제일사명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이 공화국헌법에 명기되고 강위력한 최첨단무기들이 련속적으로 개발완성되어 우리 조국은 세계최강의 군력을 지닌 초강국의 위엄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한세기전 화승대마저 변변한것이 없어 외세에게 국권을 통락당해야만 했던 우리 조국이 만리를 굽어보는 조준경과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을 비롯한 세계최강의 절대병기들을 다 갖추고 원썬들을 전멸케 하는 통쾌한 현실에서 우리들은 강대한 공화국의 일원이 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정치외교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탁월한 정치실력과 령활한 외교지략에 의해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반미국가들과의 국제적련대가 보다 강화되고 전통적인 조로친선은 진정한 동맹관계,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화발전되었으며 조중친선관계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사회주의조국을 일구월심 따르는 해외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품어안아 삶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사롭고 자애로운 품인가를 눈물겹게 절감하게 한 못잇을 나날들이었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8차대회에서 새로 개정된 당규약에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내용을 명기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이 담겨진 해외동포권익옹호법까지 채택하도록 하여 주시었습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회원들의 마음을 남먼저 헤아려보시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속에서도 우리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주요정치행사에도 참가하도록 하여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인민의 웃음소

리 넘쳐나는 문화휴양지들에서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누리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은 슬하의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마음 쓰는 친정집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역에 사는 해외동포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있어 저희들은 애국의 초지를 굽히지 않고 사회주의조국과 동포사회의 부흥을 위해 꾀꿉이 일해올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 사는 전체 조선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하고 강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는 신념의 기둥을 억년반석으로 세워주시고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올립니다.

지금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총련합회조직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드는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아래에서 살며 일하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답게 결성세대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드림없이 계승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세세년년 정성다해 높이 모시고 중국동북3성지역의 항일혁명전적지들과 사적물들을 정중히 보존, 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년천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동포제일주의를 조직강화의 불변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원수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데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들의 권익옹호, 새세대육성, 민족성고수의 3대주력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며 총련합회의 모든 일군들과 회원들을 애국주의와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닌 참된 조선사람으로 살도록 교양하여 동포사회 그 어디서나 《우리는 조선사람》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전면적부흥발전에 특색있게 기여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주신 조중친선관계와 불멸의 대외활동업적을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삼가 우리르는 저희들의 마음속 간절한 소망은 오직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백승의 조선로동당과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2026년 2월 19일
중국 심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4 뚝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4 뚝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4 뚝에 즈음하여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김경수회장, 재중조선인청년협회회원들, 심양시지부공민들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4 뚝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일군들이 13일 총련합회본부회의장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이 정중히 모시져있었다.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료녕지구협회일군들과 산하지부일군들, 심양시지부성원들과 단동시지부성원들이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축행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그는 경사스러운 2월명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피어린 항일대전과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을 체험하시며 애국의 뜻과 의지,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굳히시였으며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실 응지를 안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

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두의 령장이시다고 칭송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력한 총대우에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을 수놓으시며 인민군대를 당과 인민의 군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천하무적의 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었으며 무비의 담력과 령활한 지략으로 적대세력들과의 전면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시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세계가 놀라는 기적적인 승리들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민헌신의 려정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삼지연시가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되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의주온실종합농장과 삼광축산농장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과 문명을 위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갈 맹세를 다지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애국조직으로, 일군들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굳게 뭉친 대오로, 조중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력있는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경축행사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로 끝났다.

계속하여 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4 후대들을 위하여》를 시청하였다.



영화는 온나라 도처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통학렬차, 통학배도 보내주시며 산원과 소년궁전과 야영소도 세워주시고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운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조국을 후대들을 키우는데서 세계적인 교육의 모범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고매한 후대사랑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최은복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바쁜 설명절대목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수고를 하였다고 인사하면서 조국의 소식들을 전하였다.

우리 조국은 8 차대회기간에 세계를 놀래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계가 코로나전염병으로 경제침체위기에 빠졌지만 우리 조국은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발전하는 국면이 계속되고있다.

우리는 조선해외공민이며 우리에게 대한 조국의 기대가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에서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열렬히 축하하며 이국땅에 사는 전체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조국은 조국건설에 벽돌한장 쌓은것도 없는 우리들을 영광의 주석단에 세워주고 고급호텔들과 인민의 문화휴양지와 관광지들에서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비용으로 향수하게 하면서 우리 경제인들을 조국에 마음대로 출입국하게 배려해주고 있다.

우리는 조선공민의 긍지를 안고 고마운 조국을 사랑하고 공민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면서 중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설명절에 모두들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유쾌하기를 축복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4돐에 즈음하여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성송화국제무역유한공사, 주해원세수출입무역유한공사 류홍, 연변북두무역유한공사 박광현, 연변회리공업무역유한회사 우치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길림지구협회와 할빈지구협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탄생 84 뉘을 맞으며 2월 8일에 업적토론회를 화상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4 뉘에 즈음하여 연변지구협회, 할빈시지부, 목단강지구협회에서 문헌학습을 진행하였다.



장백현지부에서는 2월 14일에 지부활동실에서 광명성절을 기념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으며 결의모임을 진행하였다.

단동지부공민들이 2월 16일에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에 단동시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중남지구협회에서 2월 13일에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후 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4 후대들을 위하여》를 시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축기를 보내었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축기를 보내었다.
 축기에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최대한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등의 글발들이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 꽃바구니를 보내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4 뉘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도착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1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철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끝)

청년협회 2026년 신년사업계획과 방안토의



재중조선인청년협회회원들이 단동시완다호텔 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사업계획과 방안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송미회장이 2026년 신년사업계획서를 낭독하고 그 집행방안들이 토의되었다. 끝으로 협회송년회를 단동옥단봉식당에서 진행하였다.

료녕지구협회 일군들 협회모임진행

료녕지구협회 일군들이 2월 13일 본부에서 협회모임을 진행하였다.

주계숙회장을 비롯한 료녕지구협회 일군들과 산하 지부장들, 단동시지부와 심양시지부공민들이 협회모임에 참가하였다.

주계숙회장은 모임에서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면서 료녕지구협회의

금년도 사업중심을 각지부의 활성화, 공민권익옹호, 후비양성사업과 민족성고수사업에 두며 훌륭한 성과로 모범지구협회들을 따라배워 앞선 지구협회로 되자고 호소하였다.

심연택부회장은 심양시지부와 단동시지부는 조선령사관과 총련합회본부와 단동대표부와 함께 위치하고있어 총련합회에서 중시하는 지부들이다.

새해에는 열심히 노력하여 조국의 배려에 보답하고 공민들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다고 자기의 결의를 피력하였다.

료녕지구협회 권현담당은 단동시지부공민들이 지난 한해에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주계숙회장이 공민찾기운동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이룰것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춘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축원하였다.

이어서 각 지부장들의 발언과 토론들이 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음력설을 맞으며 공민들 위문 산하 각 지부장들이 위문품을 전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음력설을 맞으며 공민들을 찾아 방문하는 위문사업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지부장들이 위문품들을 공민들에게 전달하였다.

위문품을 받은 공민들은 본부와 지부장들이 우리들을 늘 걱정해주며 찾아와주는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년말의 바쁜 속에서도 이렇게 동포애가 깃든 물품까지 전달해주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조직이 있어 든든하고 우리 조직이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감격의 마음을 토로하였다.

모두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중총련의 무궁발전을 축복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4돛에 즈음하여 길림지구협회와 할빈지구협회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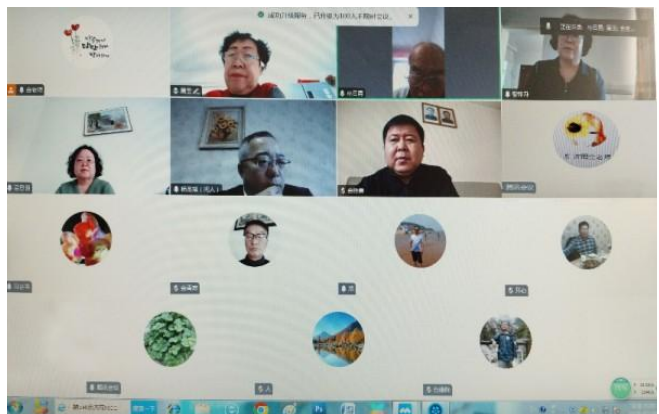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4돛을 맞으며 길림지구협회와 할빈지구협회에서 2월 8일 업적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길림지구협회 김련원회장, 할빈지구협회 박일남회장을 비롯한 산하지부장들과 담당국장이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량해자길림지구협회사무장이 사회하였다. 토론회는 먼저 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4 후대들을 위하여》를 시청하였다. 이어 김청수길림지구협회 부회장과 강금옥할빈시지부 사무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공화국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이 가속화되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4돛을 맞는 우리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부국강병의 만년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새로운 주체년대에 급부상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국위를 체감하면서 고귀한 한생을 오로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멸의 업적과 로고가 있어 오늘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졌음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게 된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항일혈전과 새조선건설의 격동기, 조국해방전쟁의 전화속에서 조선을 빛내이실 원대한 뜻을 무르익히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천재적인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고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도 강행군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장정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김련원회장과 박일남회장, 양성빈지부장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강국건설의 튼튼한 밑천,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 길림의 해외공민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누가보건 말건 자신의 깨끗한 충성심을 다 해나가며 지구협회 모든 공민들이 조국의 귀중함을 알고 권익옹호, 민족성고수, 후비양성사업의 길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방영선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시었다는 소식에 기쁨과 감격으로 뿔고있습니다 .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은 시대와 력사의 엄숙한 요구이고 전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우리 민족의 가장 밝고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민족적대경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태양조선의 무궁한 미래와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시대

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공화국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십니다. 인민의 리상과 숙원이 실현되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의 새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민족의 출중한 대표자,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시책들이 인민들의 폐부에 뜨겁게 가닿게 하시고 어떤 위기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인민들결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정으로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헌신의 세계는 만사람을 매혹시키고있으며 우리 조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 빛내이고있습니다.

우리 겨레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품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우리 겨레의 존엄과 자주권도 확고히 담보될수 있음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높이 모셨기에 우리 조국은 멀지 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우뚝 설것이며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만민이 부러워하며 원수님계시여 우리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저는 앞으로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오늘의 이 영광, 이 기쁨을 안고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당 9 차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서 해외전사의 본분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각지에서 설명절을 즐겁게 맞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설명절을 맞이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설명절을 맞으며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이어졌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경건히 돌이켜보았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새 거리들과 새 마을들, 새 공장들에 존엄높은 우리의 국기가 나뭇기고 온 나라

가정들에서 울려나오는 즐거운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2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평양시와 지방의 극장 등에서 진행된 공연들은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어 주었다. 설명절을 맞으며 수도의 개선문광장과 지방의 곳곳에서 학생소년들은 연 띄우기와 팽이치기,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진행하였다.

전국각지의 급양봉사단위들도 다양한 명절봉사로 흥성이였으며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정서기지들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새별거리, 화성거리, 전위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 화려한 불장식이 펼쳐져 명절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끝)



봉산군, 시중군, 신흥군, 통천군에서 새년도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사업에 일제히 착수



지방의 보다 폭넓고 실제적인 진보를 이룩하며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가장 인민적인 국가발전관을 명확한 리정과 완벽한 실천으로 립증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의지와 드팀없는 결행력을 과시하며 새년도 지방건설이 립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전국의 20개 시, 군에서 편이어 올려져지는 지방공업공장들과 보건시설, 다기능화된 문화생활거점건설착공의 우렁찬 동음은 뜻깊은 2026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와 거창한 전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분기해나선 총진군대오에 무한한 활력과 약동하는 힘을 더해주고있다. 봉산군, 시중군, 신흥군, 통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들이 8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착공식장들은 확대심화되는 지방발전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위한 의의깊은 올해

투쟁의 전초에서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열화같은 진정과 웅대한 구상을 영용하고 줄기찬 로력투쟁으로 받들어나갈 군인건설자들의 총천한 기세와 자기 고장의 문명부흥을 예고하는 착공의 시각을 그려온 근로자들의 환희로 설레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히용동지, 김덕훈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부장 주철규동지,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해당 도와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착공식들에 참가하였다.

착공식들에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열게 될 뜻깊은 올해에 20개 시, 군에 동시에 일떠서는 경공업공

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들은 인민의 리상과 세기적숙망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지방혁명의 진리성과 생활력, 사회주의의 양양한 전도에 대한 립증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실천적성과로 더욱 긍지높이 떠올리는 이 자랑찬 현실은 온 나라 인민에게 가장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을 우리 당이 과감히 떠메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력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강력한 령도실천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경이적인 전변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제 1 2 4 련대 지휘관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지방공업혁명의 새 전구들에서 사회주의문명의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고귀한 명함을 더욱 빛내어나갈 열의에 충만된 군인건설자들이 일제히 공사에 착수하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떠받들려 개시된 새 년도의 착공식들은 우리 위업, 우리 리상에 대한 굳은 믿음과 자신심을 안고 영광의 당대회를 향하여 국투쟁, 창조투쟁에 일심매진하는 온 나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500여개 농장의 1860여개 마을에 11만 3천여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새로 건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각지에서 수많은 농촌마을들이 눈부시게 변모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이후 그 실행을 위한 사업에서는 확실한 진전이 이룩되어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500여

개 농장의 1 8 6 0여개 농촌마을에 1 1 만 3 천여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 0 2 1년 1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데를 사회주의농촌 건설에서의 최종대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그후 소집된 력사적인 당중앙전원회의들에서 농촌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주시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 4기 제 7 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 9 차대회, 제 2 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농촌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 4기 제 5 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당의 농촌건설정책집행을 위한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농촌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토대가 확실하게 구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에 떠받들려 조건이 제일 어려운 농장, 산골의 막바지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살림집건설은 비상방역상황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멈춤없이 진행되였다. 하여 농촌살림집건설의 첫번째 해인 2 0 2 2년에 전국적으로 2 만 5 6 0 0여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섰다.

당의 농촌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였다. 그후 해마다 펼쳐지는 사회주의농촌의 새집들이풍경과 더불어 지난 4년간 전국의 수많은 농촌마을들이 희한하게 변모되였다. 평양시에서 6 7 0 0여세대의 농촌살림집이 1 0여개 농장의 5 0여개 마을에 번듯하게 일떠서고 평안북도에서 태천군 룡흥농장, 정주시

독장농장을 비롯한 8 0여개 농장의 2 0 0여개 마을에 1 만 3 0 0 0여세대의 농촌살림집이 솟아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전국적으로 5 0 0여개 농장의 1 8 6 0여개 농촌마을이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였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전국각지에 2 0 2 2년보다 수천세대나 더 많은 3 만 2 천여세대의 농촌살림집들이 각이한 구조와 형태로 일떠섬으로써 농촌특유의 운치를 더한층 돋구었다. 농촌건설에 살림집들뿐 아니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도 포함시키는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운산군 답상농장과 배천군 역구도농장, 경성군 염분농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여러 농장에 현대적인 공공건물과 생산건물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상징하는 본보기적실체들이 마련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4 차전원회의 이후 우리 농촌이 눈부시게 변모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인민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 1 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힘있게 추진해나가는 위대한 우리 당이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발전상과 미래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축도이다. 지금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북변의 심산오지로부터 동서해의 해안가, 내륙지대, 별방지대에 이르기까지 전국도처에 솟아나는 현대적인 새 농촌살림집들을 보면서 이 땅우에 우리식 농촌발전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으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덕에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보답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기폭에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농촌의 천지개벽의 새 력사는 즐기차게 이어질 것이며 우리 조국은 전면적발전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갈것이다.

동해명승에 펼쳐진 지방발전의 새 경관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진행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떠받드는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의 선경들이 솟아나는 가운데 동해명승으로 자랑높은 염분진지구에 지방발전의 새 경관이 펼쳐졌다.

예로부터 경치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 수백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려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해변가 지역의 멋과 특색이 살아나는 문화휴식터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밝고 풍만한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에 받들려 현대적인 새 모습으로 개벽되고 다양한 봉사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진 염분진해안공원지구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집대성된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21일에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함경북도와 경성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펼쳐나 지방의 발전과 문명개화를 위하여, 어머니조국의 끝없는 튕성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변천된 이 지구에서 높이 울려퍼질 인민의 웃음소리와 보다 행복한 앞날을 축



원하며 염분진해안공원의 준공을 선포하였다. 《당이어 그대 있기에》의 노래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가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여갈 열의에 충만한 염분진해양려관 일군, 종업원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었다.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고 경축의 꽃보라가 분출하며 뜻깊은 준공의 환희를 더해 주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염분진해안공원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염분진해양려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봉사시설들을 경탄속에 돌아보며 그들은 동해지구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꾸려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덕에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끝없이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고마운 품속에서 새 문명의 향유자, 주인이 된 기쁨이 모두의 얼굴마다에 한껏 어려있었다.

날로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문명과 더불어 염분진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경관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받들어올린 행복의 선경으로 세세년년 빛날것이다.

농기계연구소 준공식 진행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이 더욱 가속화되는 속에 농기계연구소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견인해나갈 중심기지로 훌륭히 완공되었다.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연구소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부지선정, 형성안작성으로부터 로력과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당중앙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 안고 농업위원회와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사를 알심있게 진척시켜 연구소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구현된 특색있는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농기계연구와 시험제작, 기술교류, 제품전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과 실험기구, 장비들을 갖추고 연구사들을 위한 생활조건이 구비된 연구소가 건설됨으로써 농기계부문의 과학연구와 인재후비육성, 과학기술적 및 생산적지도를 일체화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기능화된 거점이 마련되었다.

농기계연구소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동지, 관계부문,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 연구소의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리철만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농기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영광의 당대회를 맞이하는 올해

에 농기계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척후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아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연구소를 돌아보았다.

[무형문화유산 순방] 조선족장고춤으로 중화민 족 화합의 선률 연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장고춤 제 5대 대표성 항목 전승인 박성섭의 이야기

북소리에 깃든 꿈



1976년, 열여섯살 소년 박성섭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선족장고춤의 울림을 마음속 깊이 담았다. 그 소리는 마치 장백산 계곡을 흐르는 맑은 시내물처럼 청아했고 두만강의 흐름처럼 힘차고 유장했다. 배움을 시작한 그 순간, 그는 이 북소리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조선족의 령혼이 담긴 문화의 메아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린 시절,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장고춤 애호가였던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장고를 치고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박성섭은 중학교 때 학교 무용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은 연변대학 예술학원 무용과를 선택해 체계적인 무용 이론과 기예를 익혔다. 졸업후 박성섭은 국가 2급 무용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보냈다. 1990년대, 사회가 급변하며 새로운 문화의 파도 속에서 전통 예술은 점점 삶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우리의 장고소리가 잊혀진다면 우리 민족의 한가지 중요한 목소리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기의식이 박성섭으로 하여금 단순한 예술가에서 문화 전승자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도전과 결심: 《두만강장고춤전승예술단》의 탄생

1994년 5월 1일, 박성섭은 뜻이 맞는 동료들을 모아 두만강장고춤전승예술단의 전신인 예술단체를 세웠다.

당시에는 자원과 경비가 극히 부족했고 단원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뭉쳤다. 그들은 공장 창고, 마을 마당, 학교 강당 등 어떠한 공간이라도 무대로 만들었다. 박성섭은 단장으로서 예술적 지도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자금 모집, 대외 교류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민해야 했다. 그의 핵심 철학은 명확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박물관에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단순한 공연 복제를 거부했다.

대신 오래된 장고춤 예인들을 찾아다니며 구술과 시범으로 전해지던 동작, 장단, 의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했다. 그는 장고춤이 제사나 풍년 기원 등 민속 의식에서 비롯된 종교적·생활적 의미를 강조하며 무용 자체가 가진 이야기성과 정서 표현에 주목했다. 2007년과 2008년,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장고춤이 성급 및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차례로 등재된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전승 작업에 확실한 정체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5월 30일, 예술단은 정식으로 등록되어 도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관광국 산하의 전승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두만강장고춤전승예술단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장고춤과 칼춤을 중심으로 전승, 제자 양성, 공연,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간 60여차례의 공익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혜택을 나누고 있다.

전승의 길: 무경계의 공동체를 향하여

박성섭의 전승 철학은 《열림》과 《공유》에 있다. 그는 장고춤이 조선족만의 유산이 아니라 중화민족공동체의 소중한 문화 보배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장고춤전승예술단은 일찍이 문호를 개방했다. 현재 40여명의 단원은 조선족 뿐만 아니라 한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 연령은 58세이다. 이들은 직업, 나이, 민족을 초월해 《장고춤》이라는 공통 언어로 화목하게 소통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장고춤 기예를 접한 사람은 무려 수천명에 이른다. 그의 지도 아래 예술단은 농촌, 사회구역, 양로원, 국경 검문소, 부대 등을 찾아가는 공익공연을 매년 60여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땀과 열정이 스며든 현장에서 진정한 문화의 따뜻함과 힘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그가 주도한 장고춤 기네스기록 도전 활동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장고춤 공연과 전시를 통해 그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문화적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창조와 빛남: 전통에 새 시대의 생명력을 불어넣다



박성섭은 보수적인 수호자가 아니다. 《전통의 혼을 지키되, 시대의 호흡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창작 원칙이었다.

예술단의 대표 작품인 《두만강 고운》(图们江鼓韵), 《장고소리》, 《들끓는 두만강》, 《민족단결의 꽃 피어나다》, 《형제자매는 한 가족》, 《손에 손잡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등은 전통 장고춤의 기본 동작과 장단을 바탕으로

하면서 민족단결, 국가 발전, 시대정신과 같은 현대적인 주제를 담아냈다. 레를 들어 무용작품 《꿈속의 진달래》는 전통 민요를 현대적인 편곡과 무대 연출로 재해석

해 2019년 건국 70주년 무용경연에서 금상을 따냈다. 그는 장고춤을 단독 공연에서 벗어나 《도혼》(刀魂), 《도신》(刀神) 등 칼춤과 결합하거나 현대 무용극, 무대극 등 다양한 예술 형식과 접목시키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장고춤의 표현력을 확장하고 젊은 관객층의 공감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두만강장고춤전승예술단의 발걸음은 지역을 넘어 전국,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갔다. 2007년 중국 성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제에 참가했고 길림성 및 연변주 《무형문화유산의 날》 행사, 각종 국가급 전람회 및 문화 교류 활동 참가를 통해 조선족장고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중앙방송, 봉황위성, 《민족화보》 등 유명 매체의 지속적인 보도는 이 작은 변경 도시의 예술단이 가진 거대한 문화적 에너지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비전과 유산: 멈추지 않는 북소리



30여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박성섭과 두만강장고춤전승예술단이 만든 《조선족장고춤》 브랜드 효과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조선족장고춤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조선족 문화 브랜드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령화된 단원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참여 의욕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창작의 질을 어떻게 한단계 더 향상시킬 것인가, 시장과의 접목을 통해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으로의 도전은 여전히 거대하고 간고하다.

그러나 박성섭의 미래 비전은 명확하다. 전승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전승기지》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교육 교재를 편찬하여 장고춤 전승을 표준화·학술화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교실을 열고 미니영상 등을 통해 젊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들이 계획이다. 《문화+관광》 모델을 적극 탐구하여 두만강지역 문화 관광의 살아있는 명함으로 조선족장고춤을 적극 내세우려는 타산도 하고 있다.

박성섭은 무엇보다도 조선족장고춤이 민족문화의 교량 역할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 북소리 속에는 조선족의 력사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름다운 생활을 향한 공동의 념원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중국꿈을 함께 이루어가려 합니다.》

오늘날, 박성섭의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해졌지만 그가 두드리는 장고소리는 여전히 젊고 힘차다. 그의 손길은 장고를 두드릴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문화 심장을 깨우고 다민족이 함께 하는 화합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박성섭과 그의 장고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제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전승 속에서 더욱 웅장한 문화의 합주곡으로 펼쳐질 것이다. 문화의 전승이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그 정수를 담아 미래를 창조하는 일임을 박성섭은 자신의 실천으로 증명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

/길림신문

봄날의 신나는 선물! CCTV 2026년 춘완 상서로운 봄을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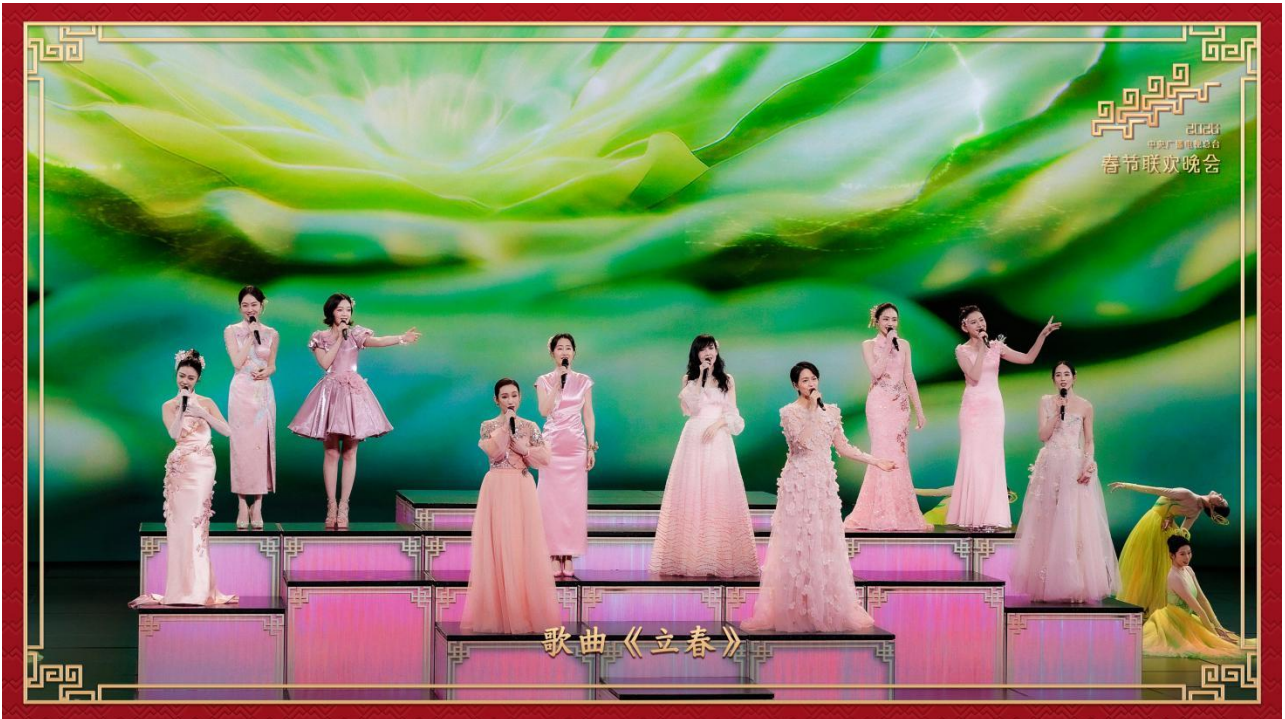


환호와 웃음으로 경축하는 설날, 준마가 힘차게 미래를 향해 질주한다. 2월 16일 20시, CCTV 《2026년춘절련환야회》(아래 춘완으로 칭함)라는 《즐겁고 경사스럽고 희망찬》 문화대연회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춘완 공연전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흥미진진한 무대가 이어지며 문화적 정취, 첨단 기술 감각, 국제적 감각을 하나로 녹여내 감동적인 《봄날의 신나는 선물》을 완성했다. 이는 전 세계 화교와 해외 친구들과 함께 화목하고 아름다우며 힘차게 전진하는 중국의 설을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16일 24시 기준, CCTV 《2026년춘절련환야회》 전미디어 생중계 루직 사용자는 6억 7700만명이며 뉴미디어플랫폼의 직접 재생 및 다시보기 회수는 135억회에 달했다. 중국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생중계 동영상 재생 수는 루직 5억 7800만회로 지난해보다 5339만회 증가했다. 신질생산력과 관련된 언급 비중은 23.78%로 작년 동기 대비 8.88배 상승했다. 청년층의 전미디어 생중계 루직 비율은 43.7%로 전년 동기 대비 10% 포인트 상승했다.

해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춘완은 해외 약 4000개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37.95% 증가한 수치이다.

CCTV.com의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생중계 동영상 재생수는 8729만회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춘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중국 문화의 맥에서 비롯된다. <립춘(立春)>은 시적인 봄 풍경 속에서 만물이 새롭게 변화하는 싱그러운 생기를 노래했다. 노래와 창의적 퍼포먼스 쇼 <꽃신축하>(贺花神)에서는 《열두 꽃의 신》이 관객들을 다양한 시공간으로 안내하여 사계절의 변화와 동양적 운치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 천년의 벽화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무용수들은 <실크로드의 고운(丝路古韵)>에서 비천의 아름답고 우아한 춤사위를 재현했다. 중국 전통극 <춘휘만리원(春晖满梨园)>에서는 로년, 중년, 청년, 유소년 4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경극, 예술, 월극, 광동극, 평극 등 중국 전통극 예술의 번성함을 보여주었다.

중국문화에서 말은 강건하고 씩씩하며 자강불식하는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암시한다. 주심과 중화민족 대가족의 아이들은 노래 <산해경>을 통해 하루에 천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신마 《길량(吉量)》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래 <질주하는 해류마(奔腾的海骝马)>는 관객들을 길고 구슬픈 무형문화유산 바얼후(巴尔虎) 장조(长调) 선물 속으로 안내하여 드넓은 초원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연출했다.

따뜻한 위로와 인간애

노래 <엄마에게는 영화관이 있어(妈妈有座电影院)>에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한 프레임씩 재생되며 시간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특별한 상영회가 되었다. 리건은 <인간의 공명(人间共鸣)>에서 고산류수와 같은 절친의 귀함을 노래했다. 왕비는 <너와 내가 함께 한 순간(你我经历的一刻)>에서 긴 세월동안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알아가는 소중한 인연과 서로를 비추는 따뜻함을 이야기했다.

한마음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 호덕부, 신효기, 이능정, 주전용, 소유봉, 후패잠, 구양나나, 진립농이 선보이는 메들리 <보도의 련가(宝岛恋歌)>는 구슬픈 선물이 대만 해협을 넘나들며 같은 뿌리와 피줄의 공명이 모든 음표에 흘렀다.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는 노래



黑龙江哈尔滨分会场《冰雪暖世界》



浙江义乌分会场《世界义乌中国年》



安徽合肥分会场《合韵满江淮》



四川宜宾分会场《立上游》

설의 정취가 짙어지며 새해의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펼쳐졌다. 후료강 할빈 분회장에서는<빙설이 따듯한 세상(冰雪暖世界)>을 불러 《등복절친》의 열정과 친근감, 그리고 빙설속의 특별한 온정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절강 이우 분회장에서는<세계 속의 이우, 중국의 설>을 경축하며 성룡과 라이오넬 리치 등 다국적 예술가들이 함께 노래했다. 음표 사이사이에 《사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이우의 뜨거운 열정이 흘렀다. 안휘 함비 분회장에서는 황매곡, 휘주(徽州) 삼조(三雕), 수룡무(手龙舞) 등 무형문화유산이<합운만강회(合韵满江淮)>에 녹아들고 저공 비행기와 지상 퍼포먼스가 《천지 매트릭스》를 이루어 새롭게 나아가는 웅장한 기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아름다움의 조화와 공명

산과 바다를 넘어 함께 춤추고 박자를 맞춘다. 미국 가수 존 레전드, 프랑스 가수 엘렌 볼레스는 그들의 대표곡<All of Me>와<Beauty and the Beast>를 선사하며 세월은 흘러도 이 마음은 영원함을 노래했다.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는<My Love>로 설 축제 무대에 올라 그대가 은하수를 건너 끝내 사랑에 닿길 기원했다.

춤<발로 구르는 리듬>은 사방의 춤사위를 모아 하니족(哈尼族) 목극무, 리수족《아척목괘(阿尺木刮)》, 스페인 플라멩코, 헝가리 전통 춤 레게뇨쉬가 정갈하게 발을 구르는 소리 속에서 새해의 풍요로움을 기원했다. 중국과 오스트리아의 곡예단이 함께 선보이는 창의적인 곡예<봄을 그리다(绘新春)>는 공중제비 돌리기와 재주 던지기 막대에 궤적 추적 및 이미징 기술을 접목하여 빛을 붓 삼아 화려한 빛그림을 그리고 새해의 축복을 사방에 전했다. 강산은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별빛은 만가(萬家)를 비춘다. 중국중앙방송총국<2026년 춘절련환야회>는 전 세계 시청자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기원하며 활기찬 병오(丙午)의 해를 힘차게 시작한다.

/후룡강일보

2월부터 이런 새 규정 시행!

남새와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 《표준도달약속합격증》 관리를 시행하고 《AI 방송인》을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키며 인민폐 현금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돈한다... 2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AI 방송인》을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에 포함시켜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업계의 특점에 비추어 방법은 AI 방송인 등 인공지능 생성내용을 감독관리에 포함시켜 새로운 기술이 허위정보를 생성하거나 전파하는 《방패막》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분야의 규범적 응용을 촉진한다. 방법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물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하여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표기를 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민폐 현금결제 거부행위 예방 및 정돈

<인민폐 현금수불 및 서비스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서는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의무나 법정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비현금 결제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수령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현금수령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도 안되며 현금결제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결제의 편리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금단위, 경영주체가 합리한 잔돈준비를 유지하고 필요한 현금수수조건을 구비하여 현금결제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것을 지시한다.



전민 열독 새 규정, 이런 지역 중점적으로 보장

<전민열독촉진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민열독을 촉진하고 책향기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전민족 사상도덕소질과 과학문화소양을 증강시킬 것을 제기했다.

전민 열독보장조치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혁명로구역, 민족지역, 변강지역, 미발달 지역의 전민열독을 중점적으로 부촉한다. 미성년자, 장애인, 로인 등에 대한 열독보장을 강화하고 적합한 독본을 제공하고 열독수업을 개설하며 전민 열독 무장애시설 건설을 지지하고 로인적합화 서비스 표준을 최적화 하는 등 조치를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남새, 과일, 가금, 알 등은 《안심증》을 소지하고 출시해야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도달약속합격증 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준도달약속합격증》은 농산물에 금지된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일반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이 표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방법은 남새(인공재배 식용균 포함), 과일, 차잎, 가축 및 가금, 가금알, 양식수산물, 농업농촌부에서 규정한 기타 농산물에 대해 표준도달약속합격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직기구,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디지털신분증》 획득



<조직기구 통일사회신용코드 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통일코드는 등록관리부문이 통일된 코드 코딩규칙에 따라 조직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일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분식별 코드를 부여하여 조직기구의 《설립》에서부터 《존속》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동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사회 신용체계의 《데이터망》을 촘촘히 짜고 전국 통일적 대시장의 《디지털다리》를 놓으며 시장감독관리의 《스마트 브레인》을 활성화한다.

행정집법 감독사업 강화 및 규범

<행정집법감독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행정집법감독사업은 규범과 지도를 병행하고 예방과 오류수정을 병행하며 감독과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따르고 행정집법문제를 시정하고 행정집법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집법 주체와 인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집행, 리익추구성 집행 및 부당한 요금부과, 부당한 벌금부과, 부당한 검사, 부당한 압류 등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집법감독 결과를 법치정부건설 성과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조문관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2026년 설명절연회 마련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이 13일 2026년 설명절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펑칭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 외교부, 국방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사법부, 공안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인민대외우호협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김동범 중국주재 우리 나라 립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끝)

2026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성원들 을 위한 친선모임 진행

2026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친선모임이 1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를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과 왕아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바다가특유의 이채로운 정서와 매력으로 하여 해양공원으로 이름높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날 저녁 갈매기호텔에서 설명절연회를 차리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피력하면서 조중인민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설명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의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끝) /조선중앙통신



冯春台公使赴黄海北道沙里院市走访慰问华侨并开展领事业务异地办公

2026年2月3日，冯春台公使赴黄海北道沙里院市慰问华侨并开展领事业务异地办公。黄海北道人民委员会对外事业局指导员郑洪光、金振国，中央华联会宣传部长梁启枝、指导员金根昌，黄海北道华联会委员长朱志杰等陪同。

冯公使走访慰问了刘松哲、朱勇杰两户华侨家庭，代表王亚军大使致以新春问候与祝福，转达祖国党和政府的亲切关怀与慰问，详细了解他们的工作生活情况，并表达对刘松哲父亲刘殿华作为一名志愿军老战士的崇高敬意。



冯公使与当地华侨代表举行座谈，介绍了祖国“十四五”伟大成就和“十五五”宏伟蓝图，现场发放并解读《中华人民共和国领事保护和协助条例》，就入籍、口岸通关、汉语学习等侨胞关心的问题深入交流；强调驻朝使馆将秉持“外交为民”宗旨，扎实高效为侨服务，希望大家同当地人民和睦相处，为中朝两国友好关系发展贡献力量。



侨胞们感谢祖国党和政府的关怀和牵挂，感谢使馆的关心和帮助，祝愿祖国明天更加辉煌灿烂。冯公使还就关心华侨工作生活、便利华侨往来等与朝方陪同人员进行沟通，希望双方共同努力做好服务华侨工作。阅读 1789 /中国驻朝鲜大使馆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4 뉘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이 15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풍중운의 아들 풍송광, 상월선생의 아들 상소위, 장울화의 외손녀 악지운, 리재덕의 아들 우명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실천강령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사변적성과들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수록한 편집물을 감상하였다. 모임에서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김정일장군께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김일성주석께서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시고 선군으로 공화국의 존엄을 고수하시였다, 또한 주석의 뜻을 계승하시여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였으며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굳건한 담보를 마련해놓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조선국방력의 강대함은 김정일총비서의 탁월한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였다.
(끝) /조선중앙통신

李春日 | 2026 朝鲜见闻 (一) : 火爆朝鲜的电视连续剧

作者：李春日，中国亚洲经济协会副会长、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特聘研究员
来源：东北亚研究通讯



22集电视连续剧《白鹤田野的新春》(백학벌의새봄)

新年伊始，有幸作为首批访朝的外国人在平壤滞留一周。虽然时隔2个月再度访朝，但看到整个朝鲜捷报频传，各地集中在年底举行贯彻落实“地方发展20x10政策”建设项目的竣工仪式。有的项目由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总书记亲自剪彩，有的项目由朝鲜劳动党政治局常委分头参加剪彩仪式。这些项目均为朝鲜劳动党八大提出的具体任务，各地的竣工都显示出八大任务的圆满完成，以此为朝鲜劳动党九大召开献礼。

外部世界都在关注朝鲜九大的召开时间，但朝鲜官方仍未公布九大召开的具体时间表。其实，越不公布具体日期，越有期待的迹象。以我个人看，朝鲜八大提出的目标还有1%未完成，就是平壤5万套住宅建设的最后1万套仍未完全竣工，就差一点收尾工程。领导人新年的第一个视察就去这个工地进行最后完工的指导工作，估计很快接近尾声了。按照金正恩总书记所强调的“说到做到、不许虚报瞒报”的作风，这1万套的竣工就绝不允许任何“差不多”的因素存在，必须要严格按照工程要求验收完工。九大召开的时间或许在这最后的1万套住宅竣工后公布。

反映金正恩总书记“以民为天”、“大公无私”(열사복무)的人民观，不仅在这些项目竣工上集中体现，而且在文学作品、影视作品上也能了解到。



在影片中，丈夫围着围裙做家务

人们喜欢这部作品的另外一个因素是敢于揭露党员干部的不正之风，把现实生活中根深蒂固的腐败行为公布与众，让那些不称职的干部们遭到人民的唾弃。

农村党风廉政建设是党风廉政建设的重要内容，是乡村振兴、地方发展的重要保障。朝鲜以影视剧的方式强调加强农村党风建设，对维护和促进农村发展稳定大局和提高粮食产量具有十分重要的意义。

这部影视剧播放的时间与“地方发展20x10政策”出台几乎同一时间段，说明地方发展只依靠硬件设施的改善是远远不够的。要从狠抓党风建设，真正杜绝党员干部的腐败行为，提高农民的劳动积极性，才能提高粮食产量，解决粮食问题和农业振兴。

总而言之，影视作品中的基层党员干部是现实的艺术映照。他们的故事为所有党员干部提供了值得学习、值得对照、值得反思的生动教材。

电视连续剧主人公、白鹤里农场的党支部书记金仁燮

/东北亚研究通讯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서 자본주의의 운명을 본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숨길수 없는 모습이며 극도의 불공평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이다.

어느 사회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 이상현상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도적단계를 거치게 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빈부격차는 일정한 역사적기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가 존속되는한 끝없이 지속되는 추이다.

1970년대이후부터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왔다.

쿠즈네쯔를 비롯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한때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지만 발전이 진척될수록 격차는 점차 축소된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들의 이론리는 일정한 기간 부정할수 없는 정설로, 법칙으로 굳어져있었다.

서방세계에서 빈부의 분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다.

2023년 3.4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66.6%는 수입이 제일 많은 10%의 사람들이 소유하였다. 반면에 수입이 제일 적은 50%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불과 2.6%에 불과하였다. 어느한 나라 언론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빈부차이가 1929년 경제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최하층대렬이 대폭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계급분화가 그만큼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온 서방세계를 휩쓴 대규모금융위기는 그 례증이다. 당시 미국과 서방나라 정부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체들도 순간에 쓰러뜨리는 이 참혹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로 하여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면서 중산층은 대폭 약화되었다.

중산층이 줄어들 때마다 장성하는것은 반자본주의투쟁에 펼쳐나설수 있는 피착취계급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나라들에서 금융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의 철회와 불공평한 세금제도의 개혁, 일자리해결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항의자들의 시위투쟁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관계로 되고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인류력사에 존재했던 과거시대 사회들을 종말에로 몰아간 근원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노예화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와 삶을 무참히 짓밟은 혹독한 신분적차별제도였다.

현존하는 자본주의는 《물질적번영》의 화려한 보자기를 뒤집어썼지만 실지는 조락하고있다. 그 근원은 빈부격차의 확대로 근로대중에게서 모든것을 앗아가는 반인민적제도에 있다.

산적된 각종 내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자본주의세계가 필사의 발악을 하며 침략과 대결에 광분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스스로 뒤집어쓴 암울한 운명을 뒤바꿀수는 없다. /로동신문

바다물을 연료로 리용하기 위한 움직임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값죽은 금속과 바다물을 리용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중성바다물전해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성과에 의해 보다 적은 원가로 수소를 안전하게 제조할수 있게 되었다.

만일 바다물이 연료로 전환된다면 에네르기의 미래가 변할수도 있다. 연구사들은 철을 비롯한 값죽은 금속을 리용하여 바다물에서 록색수소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장치인 중성바다물전해전지를 개발하였다. 수소연료는 공업분야에 널리 리용할수 있다. 실례로 발전소에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우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수소를 함께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일수 있다. 이러한 수소혼합발전에 대한 실증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화력발전의 탈탄소화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로 될것이다. 제철과 화학공업 등 높은 온도가 요구되는 현장에서 대용연료로 리용할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및 전기자동차와는 다른 우점을 가지고있는것이 연료전지자동차이다.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전기자동차에 비해 연료전지자동차는 짧은 시간에 에네르기를 공급할수 있으므로 장거리자동차나 버스 등에 리용할수 있다.

만일 바다물로부터 얻어진 수소를 값죽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면 상품수송과 공공교통분야의 탈탄소화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로동신문



로씨야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려는 서방의 책동을 강력히 배격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려는 서방의 모험주의적책동을 신랄히 규탄 배격하고있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 와셀리 네벤자는 24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이를 결정하는 경우 로씨야는 반격을 가할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이 로씨야와의 충돌을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로션을 재검토하고 마지막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생각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대통령공보관, 외무성대변인 등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제공시도를 범죄로, 국제법위반행위로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보유를 지원하는 행위는 로씨야측으로부터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시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보유가 허용될수 없다는 로씨야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절대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조선중앙통신



성 충

옷자락의 혈서

(전화에서 이음)

성충이 《입덕》에 대궐수직청에서 벌써 여러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이었다. 이날도 성충은 수직청의 넓은 상에 홀로 앉아 있느라니 《망해정》에서 울려오는 풍악소리에 귀가 따가워 두손으로 귀를 가리우고 앉아있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것이 그의 버릇으로 되다싶이 되었다. 그소리를 잠시 듣지만 앓아도 타는 마음이 좀 녹잖아질듯싶었다. 성충이 이렇게 귀를 막고있다 못해 눈까지 지리 감고있을 때였다.

《성좌평님!》그 소리에 성충이 눈을 뜨고보니 달술 계백이 수직청에 들어온것이였다. 달술은 백제판등급중에 둘째가는 등급으로 좌평의 아래였고 계백은 백제의 이름있는 젊은 장수였다.

《자네가 어떻게?...》

《성좌평, 급한 정보가 있나이다. ...》

《무슨 정보?》

《신라가 지금 당나라에 원병을 청하여 우리 나라를 치려 하고있다고 합니다.》

《뭘, 신라가 당나라에 원병을 청했다구? 그게 사실인가?》

《신라로 드나드는 장사군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니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봅니다.》 《그렇지, 인젠 더 참을수 없느니라.》 성충은 벌떡 일어나 판모와 판띠를 바로 하였다, 《어찌하려 하십니까?》

《상감마마께 급히 알려야지!》

《좌중하시오이다. 우선 대신들과 의논하신 다음에...》

《아니다, 대신들은 믿을게 없다.》

《상감마마께서 지금 한창 놀이를 즐기시고계시는데 전번처럼 비위를 거슬리다 또 어찌실려구 ...》

《허, 그까짓 별따위야 천번 받으면 어쩌냐. 이때야말루 잔치놀이에 빠지신 상감마마를 건질 때이다.》

성충은 계백을 수직청에 떨구어놓고 곧바로 《망해정》으로 향했다. 성충은 왕에게 급히 접견을 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성충이 온 의도를 다 알겠으니 후에 만나자면서 접견을 거절하였다. 성충은 주저할수 없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이 기로에서 어찌 앞뒤를 가늠하며 주저하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충은 호위군사들이 막아선 창대를 밀어제끼고 궁녀들이 한창 춤을 추는 뜰가운데로 들어갔다.

《상감마마, 좌평 성충이 급히 아뢴 말씀이 있나이다.》이렇게 뜰 한복판에 엎디어 큰소리를 치자 춤추던 궁녀들이 놀라 흩어지고 울리던 취악도 소리를 멈추었다. 갑자기 취악소리도 멎고 궁녀들의 춤가락이 보이지 않자 의자왕은 소리쳤다.

《왜들 이러느냐, 누가 흥첵 깨느냐?》 높다란 란간에 자리를 정하고 궁녀들속에 앉아있던 의자왕이 반쯤 일어나며 내려다보았다. 이때 성충은 일어나 왕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섬돌아래 다시 엎드리며 말했다.

《소신 좌평 급히 올릴 말씀이 있나이
다.》 《누구, 좌평? 성좌평인가? 무슨 말
인가? 정사에 관한 일이라면 정사날모임
에 하거라.》 《상감마마, 급한 정보이나이
다.》 《급한 정보?》

《신라가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당나라
에 청병하였다고 하나이다.》

《뭐라고? 신라가 당나라에 청병을
해?》 왕은 다소 놀라며 반문했다.

《그리구 당나라 황제는 원병을 보내겠
다고 하엿다 하나이다.》

《당나라에서 원병을?》 왕은 이제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으로 좌우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신하들도 놀라운 소식에 눈이
딩굴해 서로 바라보았고 뜰안에 가득한 궁
녀들과 악공들도 수군거렸다. 《당나라가 온
다구? ...》 주위가 소란해지자 왕은 자못 두
려운 기색을 지으며 성충에게 물었다.

《그게 사실인가?》

《그렇소이다. 달솔 계백이 신라로 나
드는 장사군들에게서 얻은 소식이라 하였
나이다.》 《신라가 당나라에 청병을 언제
했다더냐?》 《작년 가을이라고 하옵니다.》

《작년 가을?》 의자왕은 긴장해지며 어
찌 할바를 몰라하더니 곁에 있던 상좌평을
불렀다. 《상좌평,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
는가?》 상좌평은 의자왕곁으로 가 꿰어엿디
며 대답했다. 《신라가 당나라에 청병해서 당
나라가 쉽사리 원병을 보내겠다는 정보는
믿을바가 못된다고 생각하옵니다.》

《어째서?》 의자왕은 무슨 기대라도 건
듯 호기가 동해 물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장사군에게서 받았
다는데 미덥지 못합니다. 장사군이란 건
리속만 노리는 무리이니 어찌 믿을수 있
겠나이까?》 《그렇지.》

《그리고 둘째는 큰 나라인 당나라가
보잘것없는 신라에게 무슨 기대가 있기에
원병을 보내겠는가 하는것이고, 셋째로는
작년에 서로 약조했다고 하면 지금쯤은 움

직임이 있을것이오나 아직 조용하니 그 소
식은 믿기 어려운것이라 보는것이옵니다.》

《암 그렇지!》 의자왕은 이렇게 경란하
며 무릎까지 쳤다. 이렇게 상좌평의 말을
듣자 두렵던 기색을 거두고 화색이 오른
의자왕은 성충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성좌평, 그런 뜬 소문을 가지고 놀라
지 말라! 그대는 인젠 늙었어. 겁이 많아
졌거든 하하》 그러자 좌중의 대신들도 따
라 웃었다. 성충은 피가 끓어올랐다. 자
기가 왕과 대신들의 웃음거리로 되는것은
참을수 있어도 상좌평이 왕의 비위를 잘
맞추어가는 그 비굴한 태도에서는 참기
어려웠다. 설사 청병설과 원병설이 뜬소
리라 해도 이 기회에 안일에 빠진 상감마
마께 그렇게밖에 아될 말이 없단말인가!
성충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라를 위해
잘못되여가는 왕을 깨우쳐야 한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두려움도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상감마마, 아니뎨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리까! 비록 믿지 못할 장사군의 말이
라 하여도 우리가 믿고 방비하여도 손해
될것이 없나니, 어찌 더 확인해볼 여유없
이 뜬소리라 밀어버리겠나이까!》

《그럼 앞으로 더 알아볼것이다.》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은 때늦은
일이옵니다. 그러니 급히 이런 잔치놀이를
파하고 온 궁궐과 온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그대는 또 이 잔치놀이를
그만두라는거냐?》 《그렇소이다.》

《이제야 네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신
라의 청병이요, 당나라의 원병이요 하는
소린 다 이 잔치놀이를 그만두라는 수작
이 아니냐?!》

《상감마마, 안팎의 국세가 어수선해지
는데 어찌 잔치놀이만 하시나이까. 저는
정녕 바다를 바라본다는 이 <망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해주는 <망해정>이 될가
걱정뿐이옵니다.》

《뭐라구, 나라를 망하게 해주는 <망해정>이라구? 아니 어디라구 그런 무엄한 말을 탕탕하는거냐, 듣기 싫다! 저 성좌평을 당장 끌어내가라!》 《상감마마!》

《어서 끌어내지 못할가...》 성충은 그만 《망해정》에서 왕을 더 설득시키지 못한채 끌리워나가고말았다. 성충은 《망해정》에서 끌려나온 그 길로 옥에 갇혔다. 무엄하게 왕을 노엽히였다는 죄목이다. 옥에 갇힌 성충은 분하고도 억울했다. 한나라의 대신이 왕에게 노복같이 버림을 받아 옥에 갇힌 설움에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왕을 바로 일깨워주지 못하고 버림받은것이 얼마나 분한 일인가!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지난 10여년동안은 오늘과 같지 않았다. 의자왕은 즉위한 뒤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정사에 힘을 썼다. 그리하여 나라창고에 재산이 늘고 군사가 강하여 신라의 침입도 쉽게 물리치고 강토를 넓혀나갔다. 그런데 2~3년전부터 궁궐을 수축하고 《망해정》까지 지은후로 의자왕은 정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궁녀 3,000여명이나 뽑아다놓고 사냥과 잔치놀이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성충은 처음에는 나라가 태평하니 궁궐에 노래와 춤가락이 없을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그런 놀음이 이렇게 왕을 변질시키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왕이 이렇게 변질된데는 왕이 자만도취하여 안일만 추구한데도 있겠지만 그를 받들어 일하는 신하들이 바로 돕지 않은게 그 죄가 더 크지 않는가!)

바로 궁궐에 상좌평과 같은 간신들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증스럽기 그지없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왕을 돕기에 앞서 왕의 비위만 맞추려 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간신들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며 이런 간신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한 궁궐에서 함께 지낸 자신을 원망할뿐이었다.

이런 자책을 하니 옥에 갇힌 고룡보라도 앞으로 나라일에 대한 걱정으로 성충은 더욱 가슴이 저려났다. 그리하여 성충은 옥에 갇히어 갇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사람을 띄워 신라와 당나라의 동태를 탐탐케하였고 계백과 그리고 자기 대신으로 좌평이 된 홍수를 비롯한 충신들과 그에 대처할 방책도 의논하곤하였다.

신라와 당나라의 합세가 력력해지자 그에 대한 대책안을 생각하던 성충은 반드시 나라에서 중시하여야 할 한가지 대책안을 왕에게 직접 건의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어느날 땀배인 흰옷을 벗어 퍼놓고 자기의 충성의 마음을 쫓아 박는 심정으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가며 상소문을 썼다.

그 상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소신은 죽어도 나라일을 잊을수 없어 한마디 올리는바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 군사들이 침입하게 되거든 룡로로는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의 둔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험준한곳에다 방어를 하면 능히 어떤 적도 견디어낼수 있다는것을 알리고싶나이다.》 옷자락에 쓴 혈서의 상소문은 좌평 홍수에 의하여 의자왕에게 올리여졌다. 그러나 의자왕은 냄새나는 옷자락이라 쥐여보지도 않고 상좌평에게 보라고 했다. 상좌평이 얼핏 보고 하는 말이 《있지도 않는 외적침입을 우려한 글이옵니다.》 라고 했다.

《성충이 그 사람 옥에 있더니 머리가 되게 돈 모양이구만.》

《늑어 로망인가 봅니다.》 의자왕은 이렇게 성충의 혈서를 내버리게 하고 옥에 갇힌 성충을 더 박대하였으며 성충의 상소를 적극 지지해나선 홍수도 미친사람이라고 귀양까지 보내었다. 성충은 왕이 자기의 마지막 혈서도 채납하지 않고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안타까이 가슴을 두드리며 음식도 들지 않고 있다가 그만 옥에서 굶어서 목숨을 잃고말았다.

신라와 당나라가 합세하게 되리라는 정보는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신라가 백제에게 여러 성을 빼앗기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원병을 청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저의 나라를 여러번 공격하여 수십개의 성을 빼앗았는데 앞으로 두 나라 군사가 연합하여 우리 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대국에 운명을 부탁하니 일부 군사를 빌려 구원하여주기를 바라나이다.》 이에 대한 당나라 황제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나의 계획은 요즘 백제가 바다의 요해를 믿어 병기들을 준비하지 않고 나라왕과 대신들이 궁녀와 뒤섞여 질탕하게 놀고있다니 앞으로 우리가 수백척의 배를 내어 군사와 무장을 싣고 소리없이 바다를 건너 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너희 나라가 합세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난 660년 여름 백제의 왕궁에 편이여 변방에서 급보들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신라 5만군사와 당나라 13만군사가 변방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뜻밖의 소식에 놀란 의자왕은 급히 대신들을 불러 방비대책을 의논하였으나 누구하나 신통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평소 왕의 비위나 맞추고 왕의 흥취를 돋구는데만 신경을 써온 그들의 머리가 왕의 머리와 다를바 없었다. 의자왕은 이때에야 성충의 충언이 생각났으나 그는 이미 죽고 없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간언하던 홍수가 떠올라 그때까지도 귀양살이하고있던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왕앞에 불리워온 홍수는 이미 성충이 내놓았던 방책대로 룡로의 군사는 탄현에서 막고 수로의 군사는 기벌포에서 막을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궁지에 빠진 의자왕은 더 론할바 없이 홍수의 의견대로 군사를 출동시키였다.

그런데 떠났던 군사들이 되돌아왔다. 벌써 탄현에는 신라군이 육실거렸고 기벌포도

당나라군사들이 차지하였는데 량군사들이 협동으로 수도를 향해 출동했다는 것이다.

《뭘라구?》 왕은 펄쩍 뛰며 어쩔줄 몰라했다. 왕이 더욱 놀란것은 어찌면 신통히도 홍수가 나가 지켜야 한다던 그곳으로 외적이 먼저 들어와 차지했는가 하는 것이였다. 왕은 부아통이 터져 홍수를 끌어오라 했다. 《네 이놈, 어찌하여 적의 기도를 다 알고있으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늘에야 알렸느냐. 네가 바로 오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한 역적놈이 아닌가?!》 왕은 당장 홍수의 목을 칠듯이 고아대였다. 그러나 홍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도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것은 오늘에 와서 소신이 비로소 아된것이 아니옵니다. 5년전에 벌써 성좌평이 상감마마께 상소한 대책이였나이다.》 《뭘라구? 난 그런 상소를 받은적이 없다!》 《상감마마, 그때 상감마마께서 받았다 내버린 그 상소가 바로 이것이옵니다.》 홍수는 품에 간수하였던 성충의 옷자락에 쓴 혈서를 꺼내어보였다.

《엉??》 왕은 기억되였다. 땀내나던 옷자락에 피로 쓴 글 ... 그것을 받아읽고 빈정대며 상좌평이 하던 말도 떠올랐다. 《늑어 로망인가 봅니다. ...》 이 말에 무섭게 이그러지던 성충의 얼굴!

피에 얼룩진 성충의 옷자락을 킁 왕의 손은 떨리였다.

《아이쿠! 내가 상좌평의 말만 듣다가 그런 충신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후회의 눈물이 피로 얼룩진 옷자락우에 락수물처럼 떨어졌으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의자왕은 이리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은 당나라에 노예가 되어 끌리워가 죽었으며 그가 데리고 놀던 3,000 궁녀들은 푸른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궁녀들이 치마를 뒤집어쓰고 흰꽃잎처럼 강물에 떨어지던 그 절벽 《락화암》은 오늘도 백제의 멸망의 교훈을 이야기해주는 듯 처절씩처절씩 울부짖고있다.

암과 음식은 밀접한 관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6가지 음식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은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사는 6가지 류형의 음식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구에 의해 암의 발생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 고탄수화물음식

고탄수화물음식은 암세포의 에너지패속선으로 간주된다. 암세포는 《유산소 당분해》에 의존하여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리용하고 고당환경은 인슐린 류사 성장인자의 분비를 자극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

2.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온도가 섭씨 65도를 초과하는 음식은 식도점막을 손상시키고 회복과정에 암억제유전자가 돌연변이할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주로 식도편평암, 후두암,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고염음식

과도한 염분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파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며 위암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

대중들은 염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을 넘지 말아야 한다.

4. 절인 음식

아질산염은 음식을 절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위의 단백질분해산물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다.

소금에 절인 생선 등 절인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위암과 비인두암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5. 가공육제품, 특히 훈제제품

대량의 가공육류를 섭취하면 결장직장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훈제육류인데 훈제과정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은 DNA를 파괴하여 유전자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곰팡이가 생긴 음식

곰팡이가 생긴 곡물과 견과류의 아플라독신은 알려진 가장 강력한 화학발암물질 중 하나이며 특히 간암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중들은 식품의 보관조건에 주의를 돌리고 구매할 때 제품의 신선도에 주의하며 곰팡이가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우리조국의 자랑 《백금산》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은금의 자원이 가득한 나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처럼 그 이름이 빛난적이 없었다.

한평생 조국의 변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손길을 떠나서 결코 그 빛나는 이름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조국의 자랑 《백금산》도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에 검덕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룡양광산을 찾으시여 마그네사이트가 묻혀있는 산을 《백금산》이라고 이름지어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산들은 《돈산》이며 《금산》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마그네사이트를 일면 《백금》이라고 부르고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알려진 광물의 종수는 300종이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용광물들도 적지 않다. 마그네샤크링카원료로 주로 쓰이는 마그네사이트도 그중의 하나이다. 마그네사이트는 겉으로 보면 흰돌과 비슷한데 그것을 소성로에 넣어 구워내면 야금공업에서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내화물재료인 마그네샤크링카가 된다.

자료에 의하면 오늘 세계에는 철을 생산하는 나라가 약 60개나 된다고 하지만 마그네샤크링카를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몇이 안된다고 한다. 그것은 마그네샤크링카의 원료로 되는 마그네사이트자원이 없거나 부족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마그네사이트자원이 무진장하여 그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로 되고있다.

탐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마그네사이트매장량은 65억톤에 달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탐사확증된 세계마그네사이트총매장량에서 큰몫을 차지하는 굉장한 량이다. 마그네사이트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 묻혀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덕지구에 집중적으로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다.

함경남도의 단천지구에 가면 단천시로부터 구름을 허리에 휘감고 높이 솟은 해발 천수백미터의 령까지 넓고 긴 골짜기가 펼쳐져있는것을 볼수 있다. 령차를 타고도 몇시간 걸려야 하는 수백리의 깊이를 가진 이 골짜기의 룡양지구, 대흥지구, 백바위지구 등 여러 지구와 가지골짜기들에는 마그네사이트광체가 한벌 쪽 깔려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마그네사이트총매장량의 90%이상이 묻혀있다. 이것은 지금의 한해생산능력을 1.5배이상 높이는것으로 보면 2,000년이상, 2배이상 높이는것으로 보고 타산하면 1,200년이상 캐수 있는 굉장한 량이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마그네사이트매장지. 《백금》 지구이다. 대흥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에 가면 마그네사이트광체로 이루어진 산들을 볼수 있다. 그 산들에 묻혀있는 광체의 폭은 평균 140-150 메터, 심도는 천수백메터나 되는데 꺾데기를 조금만 벗겨내면 세계적규모의 채굴장들을 얼마든지 전개할수 있다.

하기에 이 기업소를 찾은 한 외국인은 자기는 세계의 마그네사이트광산은 거의다 돌아보았지만 이렇게 웅근 하나의 큰 산들이 마그네사이트광체로 이루어진 채굴장들을 처음본다고 하면서 광석을 들고 탄성을 올렸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한번와서 현지를 보면 누구나 탐이 나서 발길을 떼지못한다는 이런 채굴장들이 이 지구에 어디 가나 수두룩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강철공업의 발전추세와 그 전망을 환히 내다보시고 단천지구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는 마그네사이트자원에 튼튼히 발을 붙인 공업의 주추들을 마련해주시였으며 그 강화별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기울여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단천일대에는 마그네샤크링카를 다량생산할수 있는 공업이 흐름식으로 일식으로 꾸러져있다. 무진장한 자원을 깔고 그우에 전개된 룡양광산과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를 비롯한 큰규모의 광산들... 이 채굴기지들에는 현대적인 굴착기들과 착정기,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비롯하여 대형화, 현대화되고 고속도화된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광석을 다량 생산할수 있는 모든 공정이 일식으로 마련되어있다. 이 광산들은 오늘도 대단하지만 래일의 전망이 더더욱 좋은 잠재력있는 청춘광산들이다.

《백금산》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는 단천지구에는 마그네사이트광석을 제창 현지에서 가공처리할수 있는 대규모의 가공기지들도 훌륭히 꾸러져있다. 그리고 단천시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여 마련해주신 대규모의 마그네샤크링카생산기지가 자리잡고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현대적인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공정이 더 잘 꾸러지고있다.

실로 현대적인 대규모의 마그네사이트채굴기와 가공기지들이 마련되어 그 위력을 떨치고있는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자랑이며 조국의 또하나의 큰 자랑이다.

오늘 세계의 강철공업은 나날이 발전하여 마그네샤크링카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세계의 마그네샤크링카공업은 급속히 늘어나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지 못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내화물재료를 얻어내기 위하여 막대한 동력과 자금을 들여 바다물을 졸이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수백톤의 바다물을 졸여서 해수크링카를 얻어낸다고 한다. 이것은 약 2톤의 천연마그네사이트를 구워 1톤의 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하는것에 비해 엄청나게 더 많은 비용이 드는것이다.

마그네샤크링카에 대한 세계적수요는 오늘도 그렇지만 강철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나날이 더 높아지고있다. 하기에 전문가들을 앞으로 마그네샤크링카는 강철공업에서 명출로 될것이라고 확고히 말하고있다.

실제로 오늘 마그네샤크링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선견지명의 예지로 이룸지어 주신것처럼 《백금》과 같이 귀한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때 벌써 우리가 마그네샤크링카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원유를 채취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마그네샤크링카공업을 발전시킬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온 나라의 관심속에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자기 나라에 풍부한 한두가지의 자원을 개발하여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에 비하면 우리 나라에는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하여 세계적수요가 높은 귀중한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우리 나라의 땅속은 금은주옥이 가득찬 보물고이다. 이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의 재부이며 우리 조국이 자랑이다.

우리 나라의 비물질문화유산들 옛달이기



옛달이기는 우리 나라 비물질문화유산들중의 하나이다.

옛은 우리 인민이 만들어낸 고유한 당과류이다.

우리 선조들은 생활과정에 싹튼 보리길금이 낱알에 들어있는 농마를 당분으로 분해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밥이나 죽에 보리길금을 넣어 삭힌 다음 자루에 넣어 짜낸 물을 다시 졸여 옛을 만들어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찹쌀죽에 길금가루를 넣어 삭힌 다음 후추, 생강, 볶은 깨 등을 넣어 졸여낸 찹쌀옛의 맛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옛에는 묽게 졸인 물옛과 되게 졸여 굳힌 강옛이 있다. 물옛은 가정들에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 때나 음식맛을 돋구는데 리용되고 강옛은 물옛을 졸여서 굳힌 옛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리용되였다.

이밖에도 옛을 만들 때 부재료를 섞어넣거나 곁에 묻히는 재료에 따라 무우옛, 호박옛, 대추옛, 밤옛, 호두옛, 콩옛, 깨옛, 잣옛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예로부터 평안도와 강원도지방의 강녕이옛, 황해도지방의 무우옛, 함경도지방의 감자옛 등은 해당 지방의 특산품으로 알려져있다.

옛과 관련된 풍습도 많이 전해져오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는 해마다 설명절이면 여러가지 음식과 함께 흰옛을 만들어먹는 풍습이 있었다. 옛과 관련된 풍속들중에는 옛치기놀이, 옛장사소리, 옛과 관련된 속담 등이 있다. (끝)

/조선중앙통신

몽골

몽골은 아시아동북부에 위치하고있다. 북부는 로씨야, 동부와 남부, 서부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내륙국가이다. 이 나라의 중부는 바다로부터 1500km 나 떨어져있다. 동서길이는 2364K m, 남북길이는 1260K m로서 면적은 156 여만 km², 인구는 345 여만명으로 인구밀도가 낮다. 전국을 수도와 21 개의 성으로 나누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 울란바따르에서 살고있다.

공용어는 몽골어이다. 1941 년부터 로씨야자모에 기초한 새로운 문자를 쓰고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라마교를 믿는다. 몽골국적을 가진 주민전체를 몽골인이라고 한다. 몽골족이 총인구의 95%를 차지하는데 그중 할하몽골족이 80%를 차지한다. 그밖에 까자흐족, 로씨야인, 우량하이족, 호톤족 등 15 개의 소수민족들이 산다. 지세는 서부는 높고 동부로 점차 낮아지고 북에서 남으로는 대체로 높은 산과 초지, 원시삼림초원, 초원과 고비사막으로 되어있다. 산지와 고원이 많은데 평균 해발높이는 1580m 이며 1000m 이상의 지구가 영토의 81.2% 를 차지한다. 서부에는 알타이산줄기가 서북부에서 동남부로 뻗어있는데 해발높이는 4000m 이상이다.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알타이산줄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해발높이가 4374m 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으며 산마루에는 1 년내내 빙설이 쌓여있다.



하르오스호, 하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분지가 있다. 셀렝계강은 항가이산에서 발원하여 로씨야의 바이칼호로 흘러든다. 오논강은 흑룡강으로 흘러든다, 짠물호수인 서북부의 읍스호는 면적이 3350km² 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호수이다.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데 겨울철은 매우 춥고 길고 메마르며 여름철은 무덥고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하다. 년강수량은 200~300 mm 정도이다. 식물의 성장기일은 일반적으로 100 일 정도이다. 몽골의 농업과 목축업은 매해 가물과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는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동, 금, 은, 원유, 망간, 중석 등이다. 그중에서 석탄매장량은 1620 억톤, 동매장량은 3600 만톤으로 세계에서 앞선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하르오스호, 하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분지가 있다. 셀렝계강은 항가이산에서 발원하여 로씨야의 바이칼호로 흘러든다. 오논강은 흑룡강으로 흘러든다, 짠물호수인 서북부의 읍스호는 면적이 3350km² 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호수이다.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데 겨울철은 매우 춥고 길고 메마르며 여름철은 무덥고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하다. 년강수량은 200~300 mm 정도이다. 식물의 성장기일은 일반적으로 100 일 정도이다. 몽골의 농업과 목축업은 매해 가물과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는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동, 금, 은, 원유, 망간, 중석 등이다. 그중에서 석탄매장량은 1620 억톤, 동매장량은 3600 만톤으로 세계에서 앞선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교통은 몽골의 남북을 관통하고 로씨야와 중국을 련결하는 철로가 있다.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80-85%, 국민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집짐승마리수의 70%차지). 염소, 말, 락타 등이다. 인구 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지나친 방목으로 토지의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27.5% 차지한다. 주용공업부문은 축산물가공을 위주로 한 식료공업, 가죽공업, 모방직공업, 채굴공업, 목재가공공업이다.

몽골족의 선조는 오래전부터 오늘의 몽골북부지방과 중국 동북지방, 씨비리동부의 광활한 지대에 흩어져살고있던 몽골종족이었다. 12세기 몽골고원과 바이칼호지구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고있었다. 1206년 몽골종족의 테무진은 초원의 여러 종족들을 통일하고 자신을 《칭기스한》이라고 칭하고 몽골초원에 유목제국을 세웠으며 그의 통치밑에 각 종족들은 점차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융합되었다. 13세기 몽골족들은 위구르족의

문자를 채용하여 몽골문자를 만들었으며 정복전쟁을 일으켜 유라시아대륙의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다. 1271년 칭기스한의 손자 후비라이는 나라이름을 《원》으로 고친 후 1279년에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중국을 통치하였으며 티베트문자를 채용하여 몽골문자를 다시 만들고 그것을 통용하도록 하였다. 18~19세기 라마교가 광범히 전파되면서 티베트어도 보다 많이 쓰이게 되었다. 몽골족들은 원래 유목업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명나라, 청나라시기에는 농업도 발전하여 몽골에는 유목, 반농반목, 농경이라는 여러 가지 생업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15세기부터 몽골은 동서 두 부분으로 분열되면서 민족적의식보다 종족의식이 더 굳어졌다. 16세기에 동부집단은 다시 북부와 남부집단으로 분리되었다. 16세기에 몽골령토에 산 북부집단은 할하몽골족이라고 불리웠다. 내몽고지역에서 산 남부집단은 중국몽골족의 구성에 들어갔다. 중국의 몽골족은 1947년에 내몽고자치구를 내오고 뒤이어 단독으로 혹은 여러 소수민족과 함께 3개의 자치주, 8개의 자치현, 70여개의 민족향을 설립하였다. 중국의 몽골족은 600만명인데 위구르문자를 채용하여 만든 옛 몽골문자를 쓰고있다.

서부집단은 17세기에 오이라트한국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의 일부자손들은 몽골, 중국, 칼미크의 주민구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든 몽골족의 물질적 및 정신적문화는 기본적으로 하나이다. 전통적인 음식은 고기인데 기본은 양고기를 먹는다. 전통적인 남녀옷은 두루마기형의 옷(할라트)이다. 전통명절로는 음력 새해명절과 나담대회가 있다. 나담대회는 매해 7~8월사이에 쇠는데 활쏘기, 말타기, 씨름 및 예술공연 등이 진행된다. 남녀로소가 모두 말을 잘 탄다.

할하몽골족들은 1668년에 청나라에 항복하여 속국으로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 1924년 11월 몽골인민공화국을 세웠다. 1992년 1월 11일 국호를 몽골로 고쳤다.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단어발음의 일반적규칙

단어안에 있는 말소리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규칙에 따라 발음한다.

말소리들은 단어안에서 그것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제대로 완전하게 발음되기도 하고 제대로 발음되지 않기도 한다. 우리 말의 모음은 어데서나 다 제대로 완전하게 발음한다.

자음의 경우에는 그것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제대로 발음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달리 발음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자음들은 단어의 첫머리나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는 제대로 완전하게 발음되나 단어의 끝머리나 다른 자음앞 또는 뒤에서 제대로 발음되지 않을수 있다.

○ 혁명 [형명] (《ㄱ》 → [ㅇ]), 부엌 [부억] (《ㄱ》 → [ㄱ]),

《ㅎ》은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소리와 모음사이에서는 제대로 완전하게 발음되지 않을수 있다.

○ 좋아 [조아] , 넣어 [너어] , 열흘 [열흘~여틀] , 전화 [전화~저짜] ,
 자음 《ㄷ, ㅌ》은 앞모음 [ㅣ] 나 반모음 [ㅣ] 앞에서 제대로 발음되지 않을수도 있고 발음될수도 있다.

○ 끝이 [구지] , 같이 [가치] , 어디 [어디] , 티끌 [티끌] ,
 단어안에서 모든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이어서 발음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끊어서 발음한다.

이어서 발음한다는것은 뒤소리마디가 초성이 없이 중성으로 시작되는 소리마디일 때 앞소리마디의 중성을 뒤소리마디의 초성으로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음을 이어내기라고 한다.

그리고 끊어서 발음한다는것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소리마디의 앞에 놓이는 중성위치의 자음을 단어의 끝에서처럼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끊어서 발음하여 달라진 중성을 그대로 뒤의 초성으로 이어내면서 발음하는것을 끊어내기라고 한다. 끊어내기는 합성어나 덧붙이가 붙어 이루어진 말에서 앞의 형태부가 받침 《ㄱ,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ㆁ》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형태부가 모음《아, 어, 오, 우, 애, 의》등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때 받침 《ㄱ, ㄲ, ㄴ》은 [ㄱ]로 발음되고 《ㄷ, ㄹ, ㅁ, ㅂ, ㅅ, ㅆ, ㅇ》은 [ㄷ]로 발음되어 《ㅇ, ㆁ》은 [ㅇ]로 발음된다.

이어내기 끊어내기

부엌 [부엌]	부엌에 [부어케]	부엌안 [부어안]
넋 [넋]	넋을 [넋슬]	넋없이 [너겍시]
닭 [닥]	닭이 [달기]	닭우리 [다구리]
끝 [끝]	끝에 [끄레]	끝없이 [끄덜시]
옷 [읏]	옷이 [오시]	옷안 [오단]
낮 [낫]	낮이 [나치]	낮없다 [나덜다]
무릎 [무릅]	무릎에 [무르페]	무릎우에 [무르부예]
값 [갑]	값이 [갑시]	값있게 [가빉게]

끊어낸 말소리를 뒤소리마디에 이어서 발음하므로 끊어내기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단어의 발음상통일은 깨여지지 않으며 이웃에 있는 말소리들과의 발음상연계도 끊어지지 않는다. 단어안에서 모든 말소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건 우와 같은 두가지 일반적규칙에 따라 발음되지만 말줄기안에 들어있는 형태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규칙이 작용하지 않거나 형태부사이에 없던 말소리가 끼여나거나 있던 말소리가 줄거나 빠져버리거나 하는 특수한 말소리변화현상이 일어날수도 있다.

○ 사적용무 [사쩍용무] , 기발 [길발] , 덧이 [던니] , 발전 [발쩍] ,

○ 락하 [라카] , 옹네 [올레] , 활는다 [할른다] , 형사법 [형사뺨] .

격로 《의》의 발음

시나 가사 등의 운문에서 《에》로 발음할수 있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시적운률을 조성하는 경우에 그렇게 발음하는것이 허용된다는것이 지 항상 그렇게 발음해야 하며 또 일상의 발음에서도 그렇게 발음해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덧어놓고 격로《의》를 에로 바꾸어 발음하면 격로《에》와 혼동되어 말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며 지어는 다른 뜻의 말로 되어버리기도 한다. 레를 들어 《화분의 꽃을 옮기다.》라는 말에서 격로《의》를 《에》로 발음하면 《화분에 꽃을 옮기다》로 되어 말뜻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격로《의》는 될수록 자기 소리값대로 정확히 발음해야 한다.



장편소설 **림격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량반노릇을 하게 된 종의 아들

(전호에서 이음)

이야기는 잠시 몇년전의 일로 되돌아간다.

을묘왜변이 잦아 끝났을 때였다. 왜놈들이 쫓겨간지 얼마 안되어 리운경이라는 량반놈이 전라도의 감사로 임명되었다. 리운경은 감사로 임명되자 자기의 손발노릇을 하게 될 비장들을 선발하였다.

감사노릇을 하면서 재물을 똥자면 푹푹하고 믿을수 있는 비장들을 곁에 두고 부려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비장들이 눈치빠르고 푹푹하고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는 수단이 능란해야 감사는 손끝 하나 놀리지 않고 편안히 앉아있어도 고간에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오기때문이다.

리운경은 자기 집의 친척들중에서 믿을만 한 사람을 하나 골라 비장들의 우두머리인 례방비장을 시키고 나머지 비장들도 한다하는 젊은 량반들을 골라서 앉혔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것은 리운경이가 특별히 골라서 앉힌 비장들가운데 종의 아들이 끼여있는것이였다.

그는 다름아닌 천하에 짝이 없는 활의 명수로 을묘왜변에 출전하여 큰 공을 세운 리봉학이였다. 아무리 천하명궁이요 왜놈을 치는데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할지라도 봉학과 같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 량반들의 틈에 끼여들어 비장노릇을 하게 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량반들은 뒤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리운경의 비장으로 임명된 젊은 량반들이 두덜거렸다.

종의 자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비장노릇을 하는것이 창피하다는것이였다.

다음으로 리운경의 친구들인 높은 량반들이 그의 처사에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응당 아버지의 뒤를 이어 종노릇을 해야 할 리봉학같은 천한 사람을 량반의 벼슬자리에 올려앉히기 시작하니 나라의 법과 질서가 문란해진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누구도 리운경에게 시비를 걸수는 없었다. 당시의 습관이 감사가 임명되여갈 때는 감사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비장을 선발할 권리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렇다고 해서 리운경이 다른 량반들의 불만스러운 기분을 모르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그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의 결심을 바꾸려고 하지않았다.

리운경은 다른 량반들보다 훨씬 푹푹하고 교활한 사람이였다. 그는 자기가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히 살자면 훌륭한 무술을 가진 믿음직한 부하를 거느리러있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게다가 전라도와 같이 왜놈들이 자주 침입하는 곳에서 감사노릇을 하자면 왜놈들을



쳐물리칠수 있을만큼 용감하고 무술이 능한 부하가 꼭 필요하였다. 물론 량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량반의 자식들은 대개가 말공부쟁이들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량반들의 뒤말을 못 들은척 하고 리봉학을 비장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리윤경은 봉학을 비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로 부임한 후에는 그를 자기의 심복으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술책을 다 썼다. 그는 다른 비장들보다 봉학을 더 내세워주는척 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옷같은것을 보내주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척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자 리윤경의 속심을 알리 없는 다른 비장들이 봉학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친척인 례방비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봉학을 없애치우려고 기회를 엿보고있었다.

어느날 례방비장이 감사에게 말했다.

《지금 리봉학이 다른 비장과 둘이서 방 하나를 같이 쓰운데 각기 맡은 일이 복잡해서 한방을 쓰기가 불편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감사는 심상하게 생각하고 대답했다.

《다른 방 하나를 치워주게그러.》

《치워줄 방이 마땅치 않소이다.

혹시 외따로 떨어져있는 낡은 집을 수리해주면 어찌하오리까?》 《아무러나 그레보게.》

감사의 허락을 받고 례방비장은 의기양양해서 밖으로 나왔다.

자기의 뜻대로 봉학을 없애버릴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었다.

례방비장이 수리해서 봉학에게 준다고 하는 집은 전라감영안에서 제일 구석에 동떨어져있는 호젓한 집이었다.

집이 아담할뿐 아니라 집자리도 아늑하고 뒤곁에는 좋은 대숲이 있어서 경치가 또한 아름다웠다.

이런 좋은 집을 근 사십여년동안 사람이 들지 않고 버려둔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사십여년전, 전라감영에 있던 례방비장은 아주 무서운 욕심쟁이었다. 그놈은 례방비장의 자리를 타고앉은지 1년도 못되어 감사의 권세를 휘둘러 수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흉악한 놈이었다. 이놈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값진 물건들을 남몰래 이 집에 가져다 숨겨놓았다. 어느날 이놈은 방안에 혼자 들어앉아 감춰놓았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들여다 보고있었다. 이때 이 집의 청소를 맡은 어린 관비 추월이기 불쑥 방으로 들어왔다. 례방비장은 화닥닥 놀라서 물건들을 몸으로 가렸으나 추월이의 눈앞에서 그것을 숨길수는 없었다.

례방비장놈은 무심히 들어왔다가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고 서있는 추월이를 잡아먹을것처럼 노려보았다. 그놈은 병아리를 덮치는 독수리같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어린 추월이의 목을 눌러 죽여버렸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추월이를 죽인 뒤부터 례방비장놈의 정신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한것이다. 그러다가 그놈은 얼마 안 있어 아주 미치고말았다. 어느날 밤에 다른 비장 한사람이 그 집에 찾아갔다. 례방비장놈은 그 비장에게 자기가 저지른짓을 죄다 실토후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추월이년이 내게 와서 밤낮으로 붙어 못살게 구니 어디 살수가 있나? 그년이 지금 어디로 잠간 나갔지만 곧 또 올것세.》

그 말을 들은 비장은 어이가 없어서 웃고말았다.

이때 례방비장놈이 겁에 질린 얼굴로 방구석을 바라보았다.

머리를 산산이 풀어헤친 추월이가 방구석에서 솟아나오더니 차츰차츰 눈앞으로 다가오는것이였다. 그는 그만 으악--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잃고말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그집에 가보니 레방비장은 시체가 되어 누워있고 찾아갔던 비장은 정신을 잃은채 그옆에 쓰러져있더라는것이였다.

얼마후에 그 비장이 정신을 차려서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하여 레방비장이 추월이를 죽인 내막과 추월이의 귀신이 레방비장을 죽인 사연을 알게 되였다.

그때부터 레방비장이 있던 그 방에서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나서 귀신방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지금까지 겁이 나서 사람이 들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사실이 어떻든 귀신방의 매력에 생긴 때로부터 사십여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감영하인들은 물론 감사나 도사같은 량반들의 입에서도 추월이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어스름달밤에 흰옷자락이 번뜩하면 《아이구, 추월이가 나왔다.》 하고 뒤설레를 떨었으며 굶은비 내리는 밤에 박쥐가 짹짹하면 《아이구, 추월이 우는 소리가 난다.》 하고 비명을 질렀다.

바로 이런 집에 봉학을 넣으려는 레방비장의 속심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할것이다. 귀신방을 수리하기 시작한 뒤 봉학을 따르는 통인아이 하나가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있는 그에게 귀땀을 하여 주었다.

《지금 수리하고있는 방이 나리가 계실 방이라지요?》

《그렇단다.》

《나리, 그 방으루 가시지 맙시오.》

《왜?》

《나리는 아직 모르실테지만 그 방이 귀신방입니다. 그 방에 들면 영나없이 죽습니다.》

통인아이는 봉학에게 귀신방의 매력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봉학은 통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신방이라고 하여 안 갈 생각은 없었으나 레방비장님의 교묘한 심보만은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봉학은 레방비장을 찾아갔다.

《나는 새로 수리하는 방으로 안 가겠소.》

《갑자기 탄소리를 하니 웬일인가?》

《그래 나같은 상놈은 귀신한테 죽어두 상관없단 말이요?》

《귀신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귀신이야?》

레방비장은 시치미를 떼였다.

《량반한테 죽은 추월이 귀신이랍니다.》

《그까짓 쓸데없는 소릴 끝이듣나?》

《끝이듣든 안 듣든 난 그 방에 가기 싫으니 그리 아시우.》

그러자 레방비장은 비양스럽게 웃었다.

《사또께서 정하신 일인데 자네가 가기 싫다구 감히 안 갈수 있나?》

《그만두우, 내가 직접 사또께 말씀드리겠소.》

이 말에 레방비장은 조금 속이 저렸다.

《정말 사또께 말씀드릴텐가?》

봉학은 레방비장의 저린 속심을 짐작하고 빙그레 웃었다.

《글쎄 좀더 생각해보구요.》

레방비장은 울근불근해서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던 다음날이였다. 리윤경은 봉학이 몰래 다른 비장들을 자기 방에 불러다놓고 타일렀다.

《자네들 생각해보게. 내가 어째서 한 다하는 량반출신의 자네들보다 종의 자식인 봉학일 더 내세울텐가? 자네들두 장차 높은 벼슬자리에 앉을 사람들이니 말하네만 벼슬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자면 다 요령이 있어야 하는거야. 혹시 왜적이 침범하면 나나 자네들이 나가서 싸울수는 없지 않나? 그런 위험한 때 봉학이를 써먹자면 눈에 띄우게 두둔해주기도 해야 하거든. 다들 내 말을 알겠나?》

리윤경은 다른 비장들을 이렇게 타일러 주고나서 다시 봉학을 조용히 불렀다.



《네가 근본이 천한만큼 남들이 업신여기기 쉬우나 남이야 어떻든 네앞만 잘 닦으며 돌아오는 뭇이 있을테니 아무쪼록 공손하고 다른 비장들과 의종게 지내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잔뜩 긴장하여졌던 봉학과 다른 비장들간의 관계는 다소 풀렸다. 봉학은 귀신방의 수리가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옮겼다. 감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레방비장의 생각이 달라져서 봉학에게 다른 방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봉학이 그냥 이 집으로 옮기고만것이다.

다음날 아침 봉학이 아무 탈없이 귀신방에서 자고 일어난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간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봉학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침인사를 탐탁하게 받았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봉학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감영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늦다리를 건너서 감영으로 통하는 큰길에 나섰을 때 길옆 대밭쪽에서 늙은 녀인의 울부짖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골목길안으로 들어가보았다. 대밭 한귀퉁이에 제딱지같은 초가집이 있고 집둘레에는 구경군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늙은 녀인의 울부짖음소리는 바로 그 집 뜰안에서 울리고있었다.

봉학은 사람들을 헤치고 울타리에 다가가서 뜰안을 들여다보았다.

과파 늙은 할머니가 통인복색을 한 젊은 남자의 두다리를 부여잡고 흠바닥에 덩구는데 그옆에서는 반벌거숭이의 어린것들 서넛이 울고있었다.

《아이고, 나같은게 굶어죽는건 아까운게 없다치구 애비에미없이 이 늙은것한테 매달린 어린것들은 불쌍하지두 않소? 왜놈치러 나갔다가 죽은 저 어린것들의 애비를 생각해서라두 제발 대밭을 빼앗지 말아주소.》

할머니가 울며불며 애원하자 통인놈은 사정없이 밭길로 걸어갔다.

《이 할망구가 대밭을 진상공물루 쳐가는데 행악을 하면 어찌자는거야? 한번 잡혀가서 뼈마디가 부서져보아야 알겠어?》

그리고는 구경군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다들 흠어져! 흠어지지 않으면 잡아다가 모주리 방망이찜질을 해줄테야.》

그래도 구경군들은 흠어지지 않았다. 봉학은 옆에 선 사람에게 물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소?》

《본관에서 나온 선자통인이라우.》

대답하던 사람은 말을 하다말고 봉학의 비장옷차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래져서 비실비실 피해버렸다.

전라도나 경상도의 벼슬자리에 앉은 량반들은 이 선자통인을 끼고 임금에게 바친다는구실로 백성들의 대밭을 빼앗아들이는것이였다.

봉학은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지금 선자통인이 왜놈에게 아들을 잃은 불쌍한 할머니집의 대밭을 빼앗으려든다는것을 짐작할수있었다. 봉학은 삼작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다.

《네가 본관에서 나온 선자통인이냐?》

봉학의 호령소리를 들은 통인은 어리둥절했다가 비장의 옷차림을 보고 놀라서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렇소이다.》

《나는 감영의 비장이다. 네가 이런 불쌍한 집의 대밭을 마구 빼앗으려드니 그런 포악한짓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 집 대밭은 본관사또님께서 직접 고르신것이올시다.》

《본관사또라니 새로 부임하신 부윤령감말이냐?》

《네.》

《아니, 무엇이 어찌고 어찌? 이놈아, 도대체 부윤령감이 오신지 한달도 못되었



는데 어느 틈에 진상선자감을 고르구 다니신단 말이냐?》

《정말입니다. 어제 본관사또께서 놀이터에 갔다오시다가 이 대밭을 보시구 분부하셨소이다.》 《듣기 싫다. 이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감영으루 잡아다가 네놈의 다리를 분질러놓을테니 그리 알아라.》

이때 악이 치받친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구정물이 담긴 자배기를 들고나와 봉학과 통인에게 끼얹었다. 그 할머니는 봉학의 옷차림을 보고 그도 통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 대밭을 빼앗으려고 온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다.

《옛다. 대밭두 먹구 이것두 먹구 다 처먹어라. 그래두 배가 안 부르면 이 늙은것두 잡아먹구 저 어린것들두 잡아먹구 다 씹어먹어라, 다 씹어먹어.》

할머니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통인은 두어두고 봉학한테 달려들었다.

봉학은 어이가 없어서 구정물을 들쓴채 그대로 서있었다.

구경꾼들이 나서서 달려드는 할머니를 말렸다. 《아니,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는 고마운 나리께 이게 무슨짓이요?》 《이 나리가 저놈을 쫓아버리셨으니 어서 고맙다는 인사나 하시우.》

사람들은 이렇게 떠들며 봉학을 고마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봉학은 슬그머니 울밖으로 나와버렸다. 선자통인놈은 어느 틈에 도망을 쳤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봉학이 큰길어귀에 이르렀을 때였다. 뒤에서 잦은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애된 녀자의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봉학이 돌아보았다. 기생차림의 젊은 녀자였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

《왜 그러느냐?》

《옷을 버리셨으니 그대로 어떻게 가세요? 저의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들어가서

손질해 입구 가세요.》 봉학은 녀자의 청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사실 구정물에 어지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큰길에 나설수는 없었다. 봉학은 그 녀자의 집에 들어가서 옷을 손질해 입었다. 그동안에 그는 그녀자의 이름이 계향이라는것과 원래 관가에 속한 종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곱다고 뽑혀서 할수없이 기생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봉학은 자신이 종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받으며 자라났기때문에 계향의 서글픈 래력을 듣고 깊이 동정하게 되었다. 한편 전주부윤은 선자통인이 감영의 비장때문에 대밭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이자는 지금 한창 임금을 쥐락펴락하는 세도재상 윤원형의 심복이었다. 그 대밭을 잡으려고 한것도 실상은 임금에게 진상한다는 핑계로 빼앗아서 윤원형에게 바치려던 것이었다.

부윤은 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인즉 임금에게 올릴 진상선자감으로 대밭을 잡고있을 때 감영비장 리봉학이 뛰어 들어 행패를 부리는통에 여사여사해서 일이 파탄되었다는 것이었다.

부윤의 편지를 받은 감사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부윤을 노엽히면 윤원형에게 미움을 받을수 있었다. 그는 리봉학을 불러다가 엄하게 꾸짖었다.

《네가 미친한 출신으로 비장의 중한 일을 맡았으면 제일이나 푹푹히 할것이지 어찌자고 감히 부윤령감의 분부를 거행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테니 그리 알아라.》

봉학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감사의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호에 이음)

조선료리



대보름날의 독특한 음식으로서는 오탁밥과 약밥, 복쌈, 국수, 나물반찬, 부름깨기, 귀밝이술 등이 있었다.

복쌈은 배추잎이나 김으로 밥을 싸먹는것이였고 오탁밥은 다섯가지 낱알로 밥을 지은것을 말하였다.

약밥은 찰밥에 약이 된다고 하는 꿀이 들어갔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인데 대추, 감, 밤, 잣, 꿀, 참기름, 간장 등이 더 포함되었다.

대보름날은 묵은 나물을 먹는 날이라고도 하였다.

묵은나물은 박나물, 버섯 등을 말린것과 오이꼭지, 가지껍질, 무우잎, 배추잎 등 국을 끓여먹으면 그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술소조부류



저항국
식료공장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명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자!

제3차 2.16경축 인민예술축전